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 교과서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장순심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구성된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과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비문학작품의 저자의 성비에서 남성 저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여성상의 모습과 남성상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남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여성성의 왜곡 문제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들을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을 서사(극 포함)문학, 서정문학, 교술문학으로 구분하여 작품의 주제와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을 통해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방향과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학 외 제재를 따로 구분하여 그 제재들이 교과서 구성에 어떤 의미로 삽입되었는가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에 고대로부터 강조되어 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다양한 양상들이 침투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성 우월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의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을 폄하하고 고정함으로써 그 권위를 지금까지 지속시켜왔으며, 이를 통해 여성은 늘 남성의 타자로서, 세계의 타자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여성관은 남성작가의 작품 곳곳에 다양한 양상으로 스며들어 학습을 통해 주체적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 학생들에게 고정된 여성상 혹은 남성상의 모습을 심어주게 되었으

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도 불구하고, 남성 혹은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되풀이 교육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늘 우수한 지도자이며 완벽한 인간상을 요구하고, 여성에게는 순종적이고 가정에 안주하여 남편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성의 모습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에게는 물론 남성에게도 억압적 상황을 강요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여성상을 심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선,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기 위한 교과 집필진이나 작품의 저자의 수의 편중문제를 재고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교육계의 개방된 인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역사적 여성인물의 발굴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여성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교과서 내용은 물론 다양한 문학작품을 여러 각도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다양한 가치의 수용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및 범위	7
II. 교과서 구성의 편제와 문제	12
1. 필자의 성비와 구성	12
2. 단원(글)의 배치와 주제	15
1) 고전문학의 경우	16
2) 현대문학의 경우	21
3) 문학 외 제재의 경우	27
3.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제 양상들	30
1) 남성 우월적 가치의 지향	32
2) 비민주적 권위주의	36
3) 배타적 여성관	41
III.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44
1. 금기의 현실원칙과 순종적 여성 - 성(性) 이데올로기	45
2. 여성의 지위와 열녀(烈女) - 정절 이데올로기	52
3. 생존의 서사와 어진 어머니 - 모성 이데올로기	62
IV. 교과서의 개선방향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제언	73
V. 결론	79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로서의 교육이념, 교육목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목적이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내용과 교육의 과정을 담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점에서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교육내용은 학교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식, 경험의 총체로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학생의 교육경험의 폭과 질을 규정한다.

8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물결 속에서 페미니즘 시각에 바탕을 두고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성관계의 현실적 불평등에 대한 자각과 양성평등¹⁾을 지향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문학 제재는 정전의 확대와 정립 면에서의 논의와 위계 혹은 연속성의 차원에서의 고려, 열린 교과서관을 수용하고 있다

1)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초기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대두되는 개념이 조건의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현 사회구조가 여성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인식하는 한 여성은 평등하게 보장된 법적인 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회와 조건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대두된 개념이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 기존의 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 분업적 이데올로기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제6차 교육과정 보다 한층 강화되어 있으며 나름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등의 차원에서 페미니즘 시각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

이러한 현실은 현재 우리의 교육이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그대로 재생산하고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이 이러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생각할 때,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학교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페미니즘 시각에 의한 문제제기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성별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들 청소년이 성장하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세워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문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의 개인적, 집단적인 독자성·특수성·주체성을 인정하여 생산물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받으며 여성의 고유한 영역이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왜곡하는 문화적 편견 및 오류를 거부하며 셋째, 사회구조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삶을 억압해왔음을 인식하고 억압의 조건들이 변화됨으로써 여성의 지위에 변화가 일어나며 또한 스스로 그 변화가 가능하며 주체적·능동적인 노력으

2) 유영희, 「교과서 문학 제재의 수용 양상 및 특성」, 『문학교육학』 11호 (2003 여름), 한국문학교육학회, p.35.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1999, 'Ⅲ. 성차별 교육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육 내용에서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여성의 회소성, 불균형적인 내용 제시, 비현실적인 내용 제시, 주 내용과의 분리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수학습 과정 및 학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은 "... 학생의 성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 성별에 따른 분리된 사회화의 결과로 귀결"됨을 지적하고 있다. p.50.

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⁴⁾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관점에 기초한 국어교과에서의 페미니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해숙, 정경아⁵⁾는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남성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여성의 기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여성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종속적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 또는 양성평등의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여성문제를 은폐하거나 과거의 여성의 삶에 대한 언급 없이 양성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의 정당한 권리획득의 노력이 아닌 명분론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호소력 이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안지영⁶⁾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구운몽>, <춘향전>, <허생전>에 나타나는 여성상을 분석하여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고 여성의 권리가 무시되는 순종적인 모습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전문학교육에서 올바른 여성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남희⁷⁾는 제6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에 수록된 소설 작품을 주제와 가치관을 분석하여, 가치관에 있어 물질보다는 정신, 인간보다는 자연,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며 우리 교육에 기대하고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 연구는 작품의 주제에서 보여 지는 가치관의 양상을 밝힘으로써 교

4) 정영자, 『한국 페미니즘 문학연구』, (서울: 좋은날, 1999), p.28.

5) 정해숙·정경아,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98 연구보고서 240-1, 한국여성개발원, 1998.

6) 안지영,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7) 강남희, 「국어 교과서 소설 작품의 주제와 가치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육을 통해 사회가 의도하는 가치관을 알아보는 데는 유익한 결과를 주었으나, 소설 작품이라는 한정된 대상과 한정된 범주만을 다룸으로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정례⁸⁾는 제6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 단원 내 소설작품을 한정하여 작가의 성별 편중,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부재, 소외, 편견의 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 중등 교과서 전체의 소설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저자와 주제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덕주⁹⁾는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소설·희곡의 여성 등장인물을 분석하였는데, 여성 인물들의 수 및 그들의 등장 횟수, 맡고 있는 역할과 성격, 여성 인물의 대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애희¹⁰⁾는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성차별에 관한 표현이 나타나는 단원을 대상으로 남녀 인물들의 성격 특성을 요약화하여 남녀 인물의 비중, 직업, 추구하는 가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오재림¹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교육정책연구과제의 수행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분석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5, 6학년을 제외한 114권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내재한 성편견이나 성차별적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시정하기 위한

8) 이정례,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9) 이덕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0) 김애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오재림,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02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서의 개발과정에서 성형평등의 점검의 부재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저자의 성형평등과 교과내용의 성편견을 점검하는 장치로서의 심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손연식¹²⁾, 이유진¹³⁾, 박애근¹⁴⁾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각각 초등학교 각학년의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학년을 제한하였거나, 국어교과서의 읽기, 말하기·듣기·쓰기 중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하였거나, 한 과목의 남·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의 모습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모두 부분적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 초등학교의 과목이 많아서 다 분석하기에 방대하다는 점도 이해되지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범위를 늘려 가는 연구가 아쉽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교과서의 분석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작품들 중에서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근대적인 여성이 나타나는 작품과 동시대의 작품들 속의 신여성의 경향에 주목하거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을 선택하여 여성성에 주목하면서 페미니즘 연구사에 비추어 여성성의 분석을 시도하거나,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그 불평등과 불합리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일부 작품에서의 여성성

12) 손연식,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양성평등교육상의 문제점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3) 이유진,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나는 여성상 비교 분석:초등학교 국어·도덕 교과서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4) 박애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 상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드러내기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교과서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이 남성작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그것들 중 부분을 택하여 여성성의 양상을 살피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과 교육과정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행해진 남녀평등의 관점에 기초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분석은 초·중·고 전체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마땅히 시도되어야 하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구의 한 부분이 되는 문학작품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학습의 위계 면에서나 학습의 내용 면에서의 분석이 학생들의 단계에 비추어 적절한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이나 내용의 어떠한 변화가 시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피상적인 남녀불평등의 문제, 언어적 문제, 삽화에서의 성역할의 고정화 문제에 치우치고 있는 점은 분석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등교과에서도 각 교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남녀평등을 말하는 것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고 마땅히 시도되어야 하지만, 연구가 좀 더 세분화하고 심화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본고가 그러한 연구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어교과서에 스며 있는 남성중심의 논리는 매우 심각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는 모든 교과의 도구교과로서의 성격과 국어 교과가 가지는 교과적 특수성으로 볼 때 청소년기의 감성이나 논리의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가 시대착오적인 남성중심의 논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감성이나 이성을 결정하는 시기의 청소년의 가치관에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심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이들의 성역할론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현재 국어 교과서는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국어 교과서에 스며있는 남성중심주의적 원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며 동시에 양성 평등의 관점에 기초한 국어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다가올 시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요구되며 이러한 인식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나타내는 일반적 문학비평의 양상은 여성상을 통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문학사에서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여성정신을 구현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분리된 여성만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하며, 여성들의 문화를 분석하여 여성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에서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여류작가의 작품에서 전통적인 여성상과 이미지의 분석, 여주인공이 처한 사회와 심리적 상황 및 갈등양상을 논의의 초점으로 삼아왔다.

이제 페미니즘 문학은 그 동안 여성의 억압상태를 밝히고, 그 억압이 사회구조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그러한 억압상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체계가 남성중심주의이며, 성별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¹⁵⁾

15) 정영자, 앞의 책, p.29.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여성성에 대한 관심은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주체의 확립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가 곧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문학 정전의 확대와 학습의 위계나 연속성의 측면에서 또한 열린 교과서관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제재의 문제와 함께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라는 측면에서의 페미니즘적 관점은 여성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 어떤 교육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제재의 주제나 관점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극복할 길을 제시함으로써, 성적 차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남성주의적 시각에 의해 구성된 국어 교과서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억압적인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가와 여성을 배제한 남성주의적 사회원리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얼마나 비인간적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이 본고의 궁극적 목적이다.

문학작품의 창작과 독서, 해석을 통해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이

(이데올로기는 경쟁적인 개인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기독교 신앙과 같이 사람들이 알고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의식적인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신념이 문화가 갖는 의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된다. 팸 모리스 지움,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서울: 문예출판사, 1997), p.18.)

상으로 삼는 페미니즘 비평은¹⁶⁾ 그간 소외되고 상대화되어 온 여성을 주체이며 중심에 놓으려는 입장이다. 기존의 문학사에서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했고, 여성은 변두리, 황무지에 놓아 부재나 침묵, 궁핍 등의 징표만을 부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이라는 용어조차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일상생활이나 언론매체에서 이미 그 인식이 폭넓게 퍼져있으며 상품 광고의 소재와 여성의 정치 참여에서 이미 그 수적 균형을 맞추는데 까지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 전반은 여성성에 대한 관심이 한껏 제고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관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주체의 중심을 다시 세울 때이며,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편협한 주체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옳음을 진지하게 모색할 줄 아는 민주적인 주체¹⁷⁾를 세울 때인 것이다.

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다룬 대상은 제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상)·(하)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작가의 성별 편중 및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부재, 소외, 편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페미니즘 문학비평에서 제시된 여러 이론이나 개념들을 원용할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문학작품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은 49편으로 전체 94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II단원에서는 먼저 II-1에서는 문학제재의 수용에 있어서 이들 작품의 작가의 성별 수치를 통해 남녀 저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고, 다음으로 그 작품

16) 송지현,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 (서울: 평민사, 1996), p.138.

17) 공종구, 『한국 현대 문학론』, (서울: 국학자료원, 1997), p.26.

들의 주제와 교과서에 실린 단원(글)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I-2 주제 분석은 현대와 고전을 구분하되 문학작품의 장르별 구분을 서사(극작품 포함)과 서정, 교술로 구분하여 살펴하고자 한다¹⁸⁾. 또한 문학 외 제재의 수용에 있어서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작품에서의 주제는 그 작품의 사상이며 의미이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며, 전체 서술 가운데서 구체화된 보편적이며 단일화된 인생관이다. 주제는 작가의 인생관이나 의도에 따라 변환을 겪고 완성된다.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때문에 주제는 문학수업에서 작품을 다룰 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핵심사항이다. 또한 작품의 최종적인 이해를 위한 마무리이기 때문이다. 주제에는 작가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가치관이 직접·간접으로 드러나며, 또한 독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남성 혹은 여성 작가들 어느 한 쪽의 편중 현상은 문학 교육에서의 성적 차별로 바로 이어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남성 작가들 중에서도 여성의 삶을 정확히 바라보고 긍정하는 작품을 썼을 수도 있고, 여성 작가 중에서도 더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작품에 투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3에서는 문학작품 전반에 나타난 주제와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가 여성들에게 억압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강요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간 남성들의 의식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제 양상들이 어떻게 문학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

18) 조동일 선생의 4분법을 따르되 극작품은 교과서에 몇 편 없기 때문에 서사 장르에 포함하여 살펴하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Ⅲ단원에서는 앞서 살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여러 모습들이 작품을 통해서 여성의 모습을 어떻게 왜곡시켜왔는지, 여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하여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각각의 여성성의 모습들을 여성다움을 강조하여 여성을 유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고정시키는 성 이데올로기로서의 금기의 현실원칙에서의 순종적 여성, 여성에게만 열행(烈行)을 강조하여 여성을 종속적으로 다루려는 정절 이데올로기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열녀, 마지막으로 모성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생존의 서사와 어진 어머니로 나누어 여성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살피고자 한다.

Ⅳ단원에서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교과서에 드러난 성 불평등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국어 교과서를 통해 나타난 여성상의 문제점이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강요되고 누적되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문학작품과 교과서 전반에 흡수된 것이라면, 교육에서 국어과 교육과 문학 교육을 통한 목표에 여성주의 시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교과서의 제재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교과서의 편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의 고려가 있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교과서 구성의 편제와 문제

1. 필자의 성비와 구성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텍스트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는 그 자체가 지닌 본질적 특성으로 전통적 관습의 뿌리와 가족 단위의 성차별과 양육방식에 대한 기존의 체제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바람직한 전인양성의 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의 경우는 문학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지니기 때문이다.

유영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 교과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¹⁹⁾ 그 지향점이나 성격에서 국어 교과서는 문학 작품을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만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내용 영역을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 활동과 역할 분담을 통해 문학 작품은 언어 자료 및 활동의 도식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의 제재는 문학 영역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교과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어 교과가 모든 교과의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적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 국어 교과서 제재의 수용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성별 차별의 문제는 우리 교육과정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저자의 성적 불균형의 문제는 고정된 성역할을 학

19) 유영희, 앞의 글, p.29.

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성별 분포도이다.

표 1 고등국어(상)의 남녀 저자 분포

대단원 \ 저자	남성	여성	기타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3	1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4		1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5		
4. 바른 말 좋은 글	1	2	3
5. 능동적인 의사소통	4		1
6. 노래의 아름다움	6	2	2
7. 생각하는 힘	4	1	1
8. 언어와 세계	5		2
합계	32	6	10

남성: 32(66.6%)

여성: 6 (12.5%)

기타²⁰⁾: 10(20.9%)

표 2 고등국어(하)의 남녀 저자 분포

대단원 \ 저자	남성	여성	기타
1. 국어가 걸어온 길	2	1	5
2. 다매체 시대의 언어 활동	6		1
3. 함께하는 언어생활	3	1	2
4. 효과적인 표현	6		1
5. 감동을 주는 언어	6		1
6. 표현과 비평	3	2	1
7. 전통과 창조	3	1	1
합계	29	5	12

남성: 29(63%)

여성: 5 (10.8%)

기타: 12(26.2%)

20) 기타 항목은 작자 미상의 작품과 학생글(학생시, 학생일기), 집필자의 글과 삽화, 광고 등이 해당된다.

위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등국어(상)·(하)에 등장하는 문학제재의 남성 저자의 비율은 각 66.6%·63%로 여성 저자의 비율은 각 12.5%·10.8%로 나타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자가 드러나지 않은 기타 작품을 제외하고 그 비율을 살펴본다면 고등국어(상)·(하)는 남성 저자 84.2%·85.3%와 여성저자 15.8%·14.7%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문학작품의 구성은 고전문학 작품이 21편이고 현대문학 작품이 28편으로 현대 작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학 텍스트에 오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은 더 커진다. 서사(극 포함)문학에서는 남성작가의 작품이 9편, 여성작가의 작품이 2편, 작자 미상인 판소리, 설화, 가면극의 3편이 있고, 서정문학에서는 총 18편의 작품 중 남성작가의 작품이 13편, 여성작가의 작품은 2편으로 밝혀졌으며, 교술문학에서는 남성작가의 작품이 13편, 여성작가의 작품이 4편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에서 남성작가의 비율이 각각 서사, 서정, 교술 모두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하게 남녀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물론 저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남성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성해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의 경우는 남성 저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전 작품이 아닌 현대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저자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남성 저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여성주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보편적 기준으로도 편향된 구성이

라고 볼 수 있다.

문학사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위대한 여성작가는 없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문단에서의 여성작가들이 얼마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문학사에서의 평가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여성다울 때는 남성성의 결핍으로, 남성다울 때는 여성성의 왜곡으로 평가함으로써 여성다울 수도 남성다울 수도 없던 혼돈의 시기를 작가 스스로 겪어야 했거나, 사회 속의 남성과 가정 안의 여성, 집밖의 창녀와 집안의 천사의 이분법으로 여성을 바라보며 스스로 여성이기를 주저해야 했던 시기 그리고 여성문학이 지향하는 바의 다양성과 평등성을 그럴 때 남편들을 극단적으로 왜곡시켜 표현한다고 하여 여성의 문학을 가부장적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본 것이다.²¹⁾ 이처럼 남성작가 중심에서 여성작가를 차별하는 비평은 이중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작가의 수의 편중이 여성상의 왜곡 및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단원(글)의 배치와 주제²²⁾

주제의 분석은 편의상 고전문학을 먼저 살펴보고 현대문학을 살펴보고자 하며, 각각의 장르를 나누어서 소설(설화·극 포함)을 먼저 살펴보고 시(시가)와 수필을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갈래의 특성상 사건이 있는 작품에서는 주제와 인물을 고려하고자 함이며 시(시가)에서는 시적 화자의 사상과 정서에 초점을 두어 주제를 살펴보고, 작가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수필

21)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서울: 민음사, 2002), p.117.

22) 교과서 주제 및 여성상의 분석의 대상은 고등국어(상)·(하)의 문학작품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성명문·논설문·광고문·안내문·미술작품·삽화 등은 보여 지는 남성이나 여성의 역할과 그 직업적 양상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작품에서는 작가의 가치관과 사상이 주제를 통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편의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문학 외 제재의 성격과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전문학의 경우

표 3 고전서사(극 포함)의 주제

제목	지은이	갈래	주제
용소와 며느리 바위	-	설화	권선징악, 절대적 이상세계와 인간적 욕망사이의 갈등하는 인간의 비극
구운몽	김만중	고전 소설	인생무상, 삶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식세계를 정립하는 정신적 재생 체험
허생전	박지원	고전 소설	무능한 양반계층에 대한 풍자와 선비의 자아각성 촉구
춘향전	-	판소리 계소설	신분을 초월한 사랑,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해방
봉산탈춤	-	가면극	신분적 특권계층인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 서사(극 포함)작품은 모두 5편이다. 이 중 작자 미상의 작품이 3편으로 설화와 가면극은 구전을 통해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작품 한 편과 나머지 두 편의 작품은 당대 양반계층으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김만중과 박지원의 작품이 각각 한 편이다.

우선 고등국어(상)·(하)에 수록된 글의 내용과 주제의식을 살펴보면, 「용소와 며느리 바위」는 서울에 거주하는 김용규(80세, 남)가 구술한 것으로 설화적 인간의 좌절을 그린 전설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실제 설화의 주인공은 노승과 며느리로, 며느리에 초

점을 맞추어 절대적 이상세계와 인간적 욕망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비극이라고 보았을 때, 떠느리의 행위와 그 근거, 결과에 대한 내용의 학습은 없다. 교과서에서는 다만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직접적이고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글의 조직방법으로서의 인과적 조직에 관해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운몽』은 주인공의 권력, 위세, 지도력이 전면에 부각된 작품으로 교과서 수록 부분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으로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고 정진하여 극락세계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주인공이 인생무상을 깨닫고 불도에의 귀의를 통해 이상적 삶을 이루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부분에서는 8선녀의 성격과 모습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고전에서는 드물게 여성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나, 작품의 주제에 맞추어 주인공의 깨달음 부분을 발췌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봉산탈춤」은 교과서에는 제 6 과장이 소개되어 있으며 양반의 거짓된 위엄과 이를 야유 공격하는 말뚝이의 대립을 통해 양반의 허세 비판과 지배층에 대한 항거를 형상화하고 있고, 「허생전」의 허생 역시 초반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한 양반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작가의 주장을 대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인물로, 비범한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벌고 도둑의 무리를 이끌어 그들의 살길을 마련해주기도 하며 이완에게 정치개혁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주제에서 보듯 무능한 양반계층의 풍자를 통해 이상적인 양반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암에게 있어서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의 움직임이 싹트는 시기에서 모든 추이를 직시했던 그의 비판적 태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춘향전』에는 진취적인 여성 춘향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주제로 나타난다. 다양한 이본과 주제에 관한 여러 논의를 고려해도, 당시로서는 여성 개인의 욕망을 강렬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교과서 수록부분을 보면 어사출두 부분으로 구원자로서의 이몽룡의 활약이 돋보이는 반면 춘향은 죽음의 기로에서도 이몽룡을 지극 정성으로 받드는 전통적인 열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제와는 다른 내용의 발췌 삽입은 교과서를 구성하는 집필진의 사고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작품의 저자뿐만이 아닌 교과서 집필진의 성비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상의 글이 실린 단원과 작품의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권선징악, 절대적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삶, 조선시대 특권계층인 양반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하는 것과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요구되어온 열(烈) 의식을 강조하는 것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 고전시(시가)의 주제

제목	지은이	갈래	주제
서동요	삼국 유사	4구체향가	선화공주에 대한 은밀한 사랑
사모곡	-	고려속요	어머니의 사랑 예찬
청산별곡	-	고려속요	삶의 괴로움과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하여가	이방원	시조	회유
단심가	정몽주	시조	변함 없는 충성심
어부사시사	윤선도	시조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즐거움
어더 니 일이여	황진이	시조	임에 대한 그리움
송인	정지상	한시	이별의 슬픔
관동별곡	정철	가사	관동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애민의 정
시집살이 노래	-	서사민요	시집살이의 어려움

고전시가인 「서동요」의 선화공주 또한 주변의 근거 없는 소문과 아버지의 고정된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희생당한 여성의 모습이다. 하권의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에 향찰의 모습을 소개하며 언어적 쓰임에 주목하여 설화에 삽입된 동요를 실어 동요의 주제로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에 주목하고 있다. 「사모곡」은 평민층에서 불리어지던 노래로 당시의 시대상을 통해 반영된 어머니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정지상의 한시 「송인」에서는 시적 화자가 여인이 되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다. 문학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시의 정서를 설명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고려속요 「청산별곡」에서는 갈등과 고뇌를 수반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 현실속에서의 깊은 갈등은 이상향을 갈구하게 되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이상향 추구의 삶을 표출하고 있다. 서사민요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한(恨)일 수밖에 없는 시집살이의 고통스런 모습이 표출되고 있다.

시조·가사 작품에서는 양반들의 삶의 모습들이 단심·연군의 가부장제 지배원리인 충(忠)의 모습이거나 자연과 함께 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주로 남성화자들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 기녀시조인 황진이 시조는 수업에서 주제나 의미에 주목하기보다는 본 수업으로 제시된 어부사시사와의 형태적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노래의 아름다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으로 고전시가문학에서 유일한 여성작가인 황진이의 시조가 지니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는다.

표 5 고전수필의 주제

제목	지은이	갈래	주제
유재론	허균	고전수필	올바른 인재 등용 촉구
요로원야화기	박두세	고전수필	양반들의 허세와 교활성 폭로
아기설	안정복	고전수필	병어리를 통해 깨달은 처세의 교훈
차마설	이곡	고전수필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자세 무소유의 깨달음
조침문	유씨부 인	고전수필	부러진 바늘을 애도함
동명일기	의유당	고전수필	일출의 장관

고전수필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올바른 인재 등용 촉구, 양반에 대한 풍자와 함께 자연 경관을 예찬하거나 바람직한 삶의 자세,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깨달음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전수필에서 여성작가의 작품은 두 작품으로 남성작가의 작품에 비해서 여전히 그 수는 적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남성작가의 수필 작품에 드러난 작중화자의 모습은 대부분 남성으로 수필이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화자가 아닌 작가 자신의 모습과 감정이라고 하겠다. 화자는 자신보다는 국가,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삶,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작은 것보다는 큰 일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 남성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유재론」에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유교적 폐단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강요되었는지 그 병폐를 잘 묘사하고 있다.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간 자의 자손은 벼슬길에 끼지 못한다.
한날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언짢아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리
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홀어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오기는 어려우리라.

- 「유재론」

무심한 물건이나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디니...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순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
게 지나는지라.

- 「조침문」

「조침문」에서 여인은 너를 잃고 난 후의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다. 여
인에게는 자식보다 귀하고 비복보다 더 믿음이 가는 대상을 바늘에 의탁하
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남편이다. 마음에서 우러
난 진솔한 고백으로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여인의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
남성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작품과 비교된다.

2) 현대문학의 경우

현대서사(극 포함)작품은 모두 9편이다. 이 중 여성 작가의 작품은 단 두
편으로 이미 교과서 전체 텍스트의 저자분류에서 그 편향성을 지적한 바 이
들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 역시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각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면, 민족의 수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그 여자네 집」,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과 그 주변에서 벌
어지는 갈등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봄·봄」, 어머니의 무한한 사
랑의 깨달음과 가족의 화해를 보여주는 「눈길」, 어머니 부재의 상황에서

부자간의 가족애를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는 극본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의 4편과 이외에 일제하의 부자 삼대의 삶, 권력의 허구, 전쟁 체험의 비극과 극복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제를 통해서 볼 때 남자주인공의 다양한 체험과 그를 통해 남성적 세계의 욕망과 가치관의 추구하고 자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의 모습은 모성이나 순종적인 여성, 희생하는 아내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 현대서사(극포함)의 주제

제목	지은이	갈래	주제
그 여자네 집	박완서	소설	완성되지 못한 사랑의 아픔 민족의 수난과정에서 좌절된 아름다운 사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소설	절대 권력의 허구, 부조리한 현실에 기생하는 소시민적 근성 비판
봄·봄	김유정	소설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 교활한 장인과 우직한 데릴사위 사이의 해학적 갈등
장마	윤홍길	소설	전쟁이 준 비극과 그것의 극복과 화해
삼대	염상섭	소설	일제시대 중산층의 삶
광장	최인훈	소설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이상적 삶을 찾아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
눈길	이청준	소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모자 관계의 회복
맹 진사 댁 경사	오영진	희곡	인간의 허욕과 우매함에 대한 풍자와 비판, 권선징악
어느날 심장이 말했다	진수완	드라마 대본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한 가족애의 확인

전체 작품 중 교과서에 실린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은 시험을 통해 주인공이 석대의 완벽한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비리임을 알게 되는 부분으로, 교과서에 실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작품을 통해서 살펴 볼 때에도 학교 교실을 전면에 내세워 남학생들 간의 권력 다툼을 통해 절대 권력의 허구를 깨닫게 한다. 학습활동 역시 남자 주인공의 심리 변화와 주인공의 행동에 관한 학습으로 우리 삶에 깨달음을 주는 문학의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에서는 부자(父子) 둘이 사는 가정에서 가사의 분담을 놓고 벌어지는 부자간의 갈등을 나름대로 극복하여 화해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의 발단이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가사 문제를 남성의 영역이 아닌 여성의 역할에 한정지어 바라보는 태도이다. 「봄·봄」에서는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에 주목하는데, 이는 동시대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과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학습이 가능하리라 본다.

「장마」는 두 어머니를 통해 전쟁의 비극과 그 화해를 『광장』은 두 여인을 통해 전쟁과 이데올로기에서 희생당한 인간의 삶을 보여준다. 작품의 교과서 제시 부분은 주인공 명준이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허구를 깨닫고 중립국을 택하는 부분으로, 교과서 단원만을 살핀다면 주인공 명준을 통한 반쪽의 주제만을 보여주며 명준의 이상적 삶의 지향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지향 점에서 만나는 두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는 작품의 내용파악과 관련하여서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활동도 없다.

「눈길」에서의 어머니 역시 웅색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도 오로지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아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길 원하지 않는다.

「맹진사댁경사」도 당시 양반층의 무분별한 폭력이 일생의 중대사인

혼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교과서 수록 부분은 혼사 당일의 모습으로 맹 진사와 그 형, 맹 노인, 김명정이 등장하고 있어 여성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삼대』는 일제에 의한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린 부자 삼대의 모습과 돈을 중심으로 한 세대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린 본문의 내용은 조의관과 조상훈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돈의 쓰임을 가지고 갈등하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

표 7 현대시(시가)의 주제

제목	지은이	갈래	주제
자모사	정인보	현대시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그리움
진달래꽃	김소월	자유시	이별의 정한과 그 승화
유리창	정지용	자유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그리움
광야	이육사	자유시	조국 광복 실현의 의지와 신념
여승	백석	자유시	한 여인의 비극적 삶
하늘	임화	자유시	넓은 미지의 세상에 대한 희망을 노래함
추억에서	박재삼	자유시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회상
설일	김남조	자유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새해의 다짐

「자모사」·「추억에서」·「여승」·「진달래 꽃」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 한(恨)으로 대변되는 여성과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남성작가의 서정세계를 표출한 이 네 편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의 어머니, 한의 일생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이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다.

「유리창」에서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광야」에서 조국의 광복의 의지를, 「하늘」에서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작가의 작품인 「설일」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관념적으로 표출한다.

현대시(시가)에서의 여성은 고전에서 보다 더 고정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은 희생, 그리움이라는 전통적 한의 정서를 한결같이 지니고 있다.

표 8 현대수필의 주제

제목	지은이	갈래	주제
가람일기	이병기	수필/일기	국문학에 대한 관심,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는 이병기
잊지 못할 운동주	정병욱	수필/평전	운동주의 인간됨과 그의 문학이 주는 감동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김용준	수필	고독을 함께 하는 두꺼비 연적
아버지의 손	오천석	수필	글을 모르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윤오영	수필	좋은 글의 요건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이규태	수필	한국적 의사소통의 특징
곡성역에서 만난 할아버지	공선욱	수필	여유 있는 삶에 대한 깨달음
나홀로 집에와 잊혀진 아이들	김성곤	수필	영화를 통해 본 미국 가정 내 어린이들의 현실과 문제점
산정무한	정비석	수필	금강산 기행에서 느낀 무한한 산정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안톤슈 나크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말의 한국	이사벨 라 버드 비숍	수필	외국인이 본 19세기말의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

비숍여사의 19세기 말 한국 여성들의 생활의 표현에서는 필자가 여성이기에 언급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과 이방인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한국 여성의 삶의 모습이 냉정하게 표현되어 있다. 공선옥의 수필은 수필문학이 지닌 관조적이며 고백적인 성격이 드러나며, 작가의 진솔한 자세가 독자의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나홀로 집에와 잊혀진 아이들」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이제 여성들의 역할은 가정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즉 그 책임의 범위는 육아, 가사에 이어 사회적 성공에까지 확대되었으나 경제력이나 가사분담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이미 그 이전에도 여성은 일하지 않는 남성을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제 사회에서의 활동적인 여성으로서 입지도 고려해야 하며 이전과 같이 충실한 가정에서의 여성도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밖에 수필에서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들은 생활 속의 여성들로 서사작품이나 서정작품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과는 또 다른 생동감을 보여주며 여성의 가혹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학에 대한 고민, 시국에 대한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 「잊지 못할 운동주」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 아리따운 여인의 빙옥같은 심정...

의지가 강렬한 남자는 과묵함 속에 정열이 넘치고 사랑이 깊은 여인은 밤새도록 하소연하던 사연도 만나서는 말이 적으니...

-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한 줄기 피부울 듯 하늘이 끄무레하면 그 하늘을 형용해서 '아침 굵은 시어머니 같다.'고 한다.

“니 어머니는 무슨 팔자로 손이 세 개 달려도 모자라나.”

-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젊은 이병기의 모습.

- 「가람일기」

예문은 남성작가의 수필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에 대한 표현들을 모아 본 것이다. 남성의 모습이 앞서 언급했듯 자신의 성취와 이상, 가정에 대한 염려, 조국의 현실에 대한 불안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성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여성은 아름답고 사랑 깊은 여인으로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성의 이상적 모습과 고부간에 갈등하며 서로 헐뜯는 모습으로, 생계를 꾸리며 악착같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고된 삶의 자취를 느끼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학 외 제재의 경우

주제 분석을 통한 여성상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교과서에 실린 제재로는, 전문가의 글인 논설문(연설문)과 설명문 외에 수기, 학생이 쓴 시, 대

중가요의 가사, 만화와 공익광고, 신문기사, 상업광고, 텔레비전 방송 기사, 버스 이용 안내문, 삽화 그리고 역사적 간행물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제재 역시 단원에서 요구하는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각각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주목하여 남성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 인물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역할의 편향성이나 고정화된 면은 없는지를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글인 논설문과 설명문은 완벽한 문장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사고와 안목을 키워주기 위한 글들이지만 모두가 남성저자의 글이다. 그 내용의 다양성만큼 여성저자의 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독창적인 사고로 다양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은 남성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절반의 몫은 여성에게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학생들에게는 진로 문제나 장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가치관은 무너지고 있으며, 여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남학생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편견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방송기사에서는 전문직업인 아나운서와 기자는 남성이며 그들이 취재하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모습은 야채를 심거나 가꾸는 여성이고, 신문기사에서는 연구 개발의 주역으로서의 남성의 성공을 다루고 있다.

만화의 주인공과 삽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는 남성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여성이 중심에 등장하는 삽화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주부이거나 어머니의 모습이다. 특히 고대 생활의 모습이 들어 있는 삽화는 다수가 남성이며 남성들의 이야기이다.

미술작품으로 교과서 제재로 수용된 것²³⁾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김기창

23) 많은 미술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으나 주 제재로 수용된 작품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화백의 강호정담, 그리고 화가 장욱진의 검색을 인터넷 읽기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에도 미술 작품의 감상의 기회가 교과서에서는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여성화가의 작품은 단 점도 없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가부장제가 강조한 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임진왜란 중 목숨을 바친 사람 외에 신라·고려·조선의 충신·효자·열녀의 사적을 수록하고 덕행을 찬양한 것으로 충(忠)·효(孝)·열(烈)을 보여준 사람들의 행적을 다루어 피폐된 국민의 도의를 회복시키고자 편찬한 것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항목은 열녀의 모습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문학 외 제재와 내용

제목	지은이	갈래	내용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최재천	논설문	우리말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의소원	김구	논설문(연설문)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우리의 사명.
육십에 배운 한글	김덕혜	수기	글을 몰라서 겪었던 고통과 시련
혼자 있고 싶어요	-	공익광고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편지글	아들에 대한 권계, 근검한 생활태도의 당부
머리카락 상황에 따라 말하기	학생작품	시	학생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이해
기미독립선언서	최남선	논설문	조선독립의 선언과 민족의 결의 촉구

동국신속삼강행실 도	-	번역문	충신·표자·열녀의 기록
훈민정음	-	훈민정음 언해본	
소학언해	-	번역 경서	
노길대언해	-	언해본	
광수생각	박광수	만화	다양한 가치의 존중
독립신문창간사	서재필	신문기사	
뉴미디어 시대의 슬픈 민주주의	김성기	논설문	정보 물신화의 비판과 진실과 신뢰의 가치
김치는 살아있다	오철우	신문기사	김치의 생태계
책을 읽자	-	TV 광고	
장욱진의 작품세계	-	인터넷검색	
영상매체시대의 책	박이문	논설문	영상매체시대에서의 책의 중요성
청소년의 언어생활	박갑수	논설문	청소년의 언어예절에 대한 비판
가시나무	하덕규	노래 가사	
강호정담	김기창	미술작품	
간디의 물레	김종철	논설문	간디의 물레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
홍보가 기가막혀	정홍철	노래 가사	
건축과 동양정신	김수근	설명문	환경친화적 건축을 위한 네가티비즘적 사고의 필요성
우리의 미술	최순우	설명문	한국미술의 특징

3.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제 양상들

루소는 남성과 여성은 성을 떠나서는 평등하다고 하며 성에 의한 차이점을 인정한다. 생물학적 차이가 남녀의 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남녀간의 차이는 우월과 열등의 차이가 아니라

특성의 차이로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지어주는 요소일 뿐이다. 즉, 남녀의 성차에 의한 존중과 남성과 여성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신체적 차이를 인정, 차이에 의한 사회적 역할과 남녀의 성역할을 인정할 것을 강조한다.²⁴⁾

그러나 루소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전통적 가부장제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요구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데올로기의 일부로서 가부장제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와 관습의 체계이다.²⁵⁾ 국가는 정책과 법, 제도 등에서 가부장적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여러 사회적인 관습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우선성은 남성/여성의 관계를 상/하, 주/종, 지배/복종의 관계로 인식하여 남존여비의 관념을 지켜왔다. 이러한 위계적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에 우선하고,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에 우선하며, 왕이 백성에 우선하고, 부모가 자식에 우선하고, 형이 아우에 우선하며, 연장자가 연소자에, 선배가 후배에, 스승이 제자에, 어른이 아이에, 처가 첩에, 적실 자식이 첩실 자식에, 조강지처가 후처에 우선하여 존재한다는 식의 위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계적 세계관은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적용되면서 윤리·도덕의식을 형성한다. 그것은

24) 이연숙은 「루소의 여성교육관에 관한 연구」에서 루소는 남녀간의 자연적인 본성의 차이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는데, 첫째, 신체적 차이로 남성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쉽고 여성은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때문에 남성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위치와 공적인 사회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규정되며 여성은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시한다. 둘째, 성향 또는 기질의 차이로 남성은 신체적으로 강하고 능동적이며 여성은 약하고 수동적이다. 남성에게 그 힘을 발견하여 발휘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은 실제로 남성을 지배하게 되기에 여성의 연약함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여성들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진리의 탐구나 학문상의 원리들과 공리에 관한 탐구 같은 여러 가지 관념들을 보편화하는 순수 사고에는 근본적으로 정신능력이 모자라므로 단지 남자가 체계화한 여러 원리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정신활동영역에서 여성의 고유 영역이라고 루소는 주장한다.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24-30.

25) 실비아 윌비, 유희정 역,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대출판부, 1996, p.41.

충, 효, 열, 우애, 예의 범도, 도리 등으로 명명되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불변의 진리로 간주되며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으로 나타났다.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하는데,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사회의 문화적 삶의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들을 흡수하여 소유하게 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치들과 기대들로 이루어진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가치들과 기대들은 이미 항상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남성이 우월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남성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위협받을 때 언제든지 비민주적 강권을 동원하여서라도 권위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남성의 그러한 위상을 위해 여성은 언제든지 도구적 존재이며 타자로서 늘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남성 우월적 가치의 지향

고전 시가 작품에 나타나는 남성의 모습은 정치적 지향성을 띤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신의 지향점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 논리는 다분히 권력지향으로 짐짓 초연한 모습으로 자연에의 심취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어부사시사」에서 표출되는 유가적 경국제민의 사상과 도가적 신선 사상은, 전자의 사상은 상대부를 향한 고민과 출사의 기회를 바라는 인물로, 후자의 경우는 사물에 초연한 자세로서 자아의 초연성으로 귀결되고 있다.²⁶⁾ 이는

고산이 임병양란과 치열한 정쟁의 중심에서 경험한 현실에서 비롯된 시대상의 반영으로 현실의 부조리에서 탈피하고자 한 것이며, 「관동별곡」의 풍류와 연군·애민의 감정 또한 남성들의 이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고려 때에 일반에게 불리어진 노래인 고려가요에서의 고뇌와 비탄에 가득찬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화자는 번거로운 속세를 떠나 청산과 해변, 깊은 산 속을 방황하지만 마음의 공허를 채울 길 없어 술에 의지한다. 체념적 애조는 생에 대한 강한 집념을 느끼게 하면서도 청산을 동경하는 마음을 소박하게 표현한 것으로 갈등하고 고뇌하는 남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평민층에서 불리던 노래이지만 뛰어난 상징과 논리성은 지식인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선조 초기의 시조의 경향이 충군(忠君), 은일(隱逸), 상사(相思) 등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그 중 자연을 노래한 남성작품이 대부분이고 후기로 내려오면 상사(相思), 이별 등을 노래한 여성작가의 작품이 많아진다.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의 강호가 등은 치자(治者) 계급의 선비들의 노래로 이들을 상대하는 기녀들에 의해 시조가 다수 창작되었음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고전문학에서 남성들의 이러한 성향은 현대문학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광야」에서 남성적 목소리로 넓은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면서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노래하고 있고 척박한 땅 광야에서 노랫소리 들리게 하겠다는 남성 화자의 의지와 기상을 보여준다. 「하늘」은 동해바다 근처의 작은 촌에서 태어나 영등포에서 투쟁하던 나는 현재는 감옥에 있지만 높은 들창을 통해 푸른 하늘을 보면서 ‘좁은 하늘을 넓은 희망의 눈동자 속 깊이 호수처럼 담으’려고 한다. 청년의 좁은 팔이지만 하늘보다 넓은 기상을 펼치고

26) 이정자 지음, 『한국 시가의 아니마 연구』, (서울: 백문사, 1996), p.306.

자 하는 희망을 노래한다. 바다라는 무한한 공간이 주는 광활함과 그것을 모두 품고자하는 신념과 야심찬 의욕을 화자는 드러내고 있으며, 「유리창」에서 화자는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차고 슬픈 것’의 정체를 아이의 비유적 형상인 ‘새’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고통스런 감정을 절제하면서 아들을 잃은 외로움과 아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이 느끼는 황홀함을 애절한 심정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상의 현대시 세 편에서는 남성 작가들이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남성적 기상을 노래하고 있고, 부성의 가슴 깊이 박힌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광복의 공간에서 지식인 남성들의 역사적 인식과 그들의 희망과 가치의 지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설화나 소설에 오면 더욱 구체적으로 남성의 우월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남성적 의식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구운몽』의 양소유의 삶이나, 물질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 부인에게는 무능한 양반이었으나 세상의 재물의 흐름을 한 눈에 꿰뚫고 있는 허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수필에 나타난 이상적인 삶과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들은 현대소설에 와서는 더욱 남성중심의 시각이 반영되어 세계속의 한국사회에서의 남성의 역할, 사회에서의 입지를 위해 노력하는 남성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늘 남성의 모습은 범우주적이며 범세계적이며 범사회적이다. 절대적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모습, 국가의 안위와 사회의 발전을 염려하는 태도, 가문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은 늘 남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남성 우월 의식은 지배 담론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민중에 의해 비판받기도 한다. 조선후기 민중들은 사회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문학작품의 한 양식을 통해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널리 공유하기도 하였다.

하층민들에 의해 공연된 희극은 전면에 엄격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 속의 인간에 집중하여 사회가 가치를 두는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일탈 행위를 전제한다. 이러한 희극적 성향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비판 받고 풍자의 대상이 된다. 말뚝이는 양반과 평민이라는 계급적인 서열 관계에 대한 일탈 행위를 통해 양반을 비웃고 풍자하고 있다.²⁷⁾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을 언어의 유희를 통해 보여주는데, 하인이 풍자의 주역으로 성장한 모습과 민중은 양반의 패배를 확인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봉산탈춤」의 각 과장들은 모두 파계승, 몰락한 양반, 하인, 무당, 사당패 등을 등장시켜 익살과 웃음을 통하여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양반춤’과장이 나와 있다. 여기에서 말뚝이와 취발이는 양반들과 대립된 상태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양반과장에서는 남성 우월적 의식을 생산하고 조장하며 법제화한 계층인 양반의 모습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지만 「봉산탈춤」 전 과장을 통해서서는 신분으로 인한 인간불평등 뿐만이 아닌 성별간의 불평등의 문제²⁸⁾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이상적인 양반상은 형편없이 초라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근대성을 지향하는 분위기와 서민의식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반이 아닌 평민계층의 후원에 힘입어 성장한 탈춤의 발전이 반봉건적 비판의식을 예리하게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존속시켜온 남성 우월 의식은 문학의 다양한 양식을 통해 당대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순을 비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적극

27) 한귀은, 「문학교육의 교육연극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172.

28) 제7과장 미얄춤에 오면 일부다처제를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적 수업환경이 교육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을 때만이 올바른 남성성과 여성성이 교육을 통해 정립될 수 있으며, 교과서에서 존재하는 남녀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남성상 여성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2) 비민주적 권위주의

고전문학에서 여성의 유순한 기질을 부각시켜 긍정적인 것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남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의 의지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스러움을 확보하기 위한 남성의 지배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반대 의견이나 방해, 혹은 저지의 위험성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남성 권력의 전횡적인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남성들에 의해 마련된 여성의 사회화의 모습이 문학작품 속에서 순종적인 여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 하에서 행해진 여성다움의 강조, 순종적이며 유순한 여성에 대한 긍정, 정절 이데올로기, 모성의 긍정 등은 현대문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몇 가지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교 이데올로기의 수절의 강요는 조선 후기 한정된 부와 권력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모순이 쌓이는 역사적 진행의 산물로서 특히 양반층의 비대를 막으려는 기득권 세력의 노력이자 양반의 명분을 이어 보려는 몰락한 집단들의 상승적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²⁹⁾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양상은 더욱 더 남성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며 지배체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행동을 요구받는다. 유교적 여성관은 ‘충신(忠臣)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며 열녀(烈女)는 불경이부(不更二

29) 조혜정,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pp.72-73.

夫)’라는 데서 잘 나타난다. 부부관계를 왕권 확립을 위한 군신관계의 층의 윤리와 동일시한 것으로 조선왕조 창건 이후 1세기를 거치는 동안 확립된 유교적 정치체제와 사회제도³⁰⁾는 여성의 지위를 철저히 구분하여 생활을 제한하였으며 여성에게 부여된 의무만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여성에게 윤리적 책임을 과중하게 부담시킴으로써 가문과 사회제도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17·8세기 임병양란을 치른 후 평민층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되자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를 느낀 양반층들은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억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일반 하층민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표창하거나 신분 이동의 기회를 주었다. 열녀의 칭호는 하층민에게는 신분상승을 위한 맹목적 선택이 되기도 하였으나 지식을 쌓고 가부장제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자각을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양반층 여성에게는 숨소리마저도 낼 수 없게 만든 강력한 구속의 수단이었다.

열녀의 존재는 인간 비극의 표상이고 그들의 삶은 여성 종속과 인간성 박탈의 극치를 이루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인식시킨 의의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열녀의 모습은 바로 여성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자기 희생의 궤적이었으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조용한 절규였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억압당하는 여성의 모습들이 고전수필에서는 ‘천한 어머니, 두 번 시집간 자, 한낱 여인네, 원한에 찬 홀어미’의 표현으로 표출되어 있어 그 강도를 잘 느낄 수 있다. 당시의 여성에게 있어서 두 번의 결혼은 큰 파격이었고, 두 첩을 거느린 남성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열녀를 요구하던 비민주적 권위주의의 자취였던 것이다.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p.66

여자의 종속관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삼종지도는 남자에게 여성을 종속시키는 유교의 여성관으로 여성의 지위 하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가계의 전승(傳承), 선조에 대한 제사, 부모에 대한 효도, 가문의 평강과 번영, 재산 확대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어머니로서의 존장권이 인정되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비해 어머니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³¹⁾ 여성성이 근대적인 제도에 의해 규율화 된 공간에서 드러날 때 이른바 현모양처로서의 모성 이데올로기가 생겨난다. 이는 여성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서 남성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제도화 된 권위주의적 남성지배 형태는 법, 교육, 고용, 종교, 가족, 문화적 관습 등과 같은 사회구조를 통해 나타난다. 이들 중 어떤 것도 단순히 개별 남성 또는 일단의 남성들의 의식적인 의도나 악의, 음모로 설명될 수 없다. 권력이 갖는 이러한 자립구조, 궁극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늘 남성의 권익 아래 종속시켜왔던 가부장제라는 사회질서에 의해 남성의 지위는 더욱 견고해졌다.

혼인 당사자인 여성이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어떠한 선택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가부장제의 폐해는 일제에 의해 왜곡된 근대의 모습에서는 여성이 물질적 금전적 가치의 교환 대상으로까지 이르게 되고, 신교육 신사상을 접한 여성에게까지 남성의 조력자로 현모양처로 살아가기를 요구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의 논리에 더욱 엄격한 규범성이 부여된다. 오랜 시간동안 누적된 윤리규범과 법제화된 정책만을 반영하는 교육은 사회에서의 시선보다 더 규범화되면서 더욱 엄격해 지는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가부장제사회를 도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념과 가치관

31) 김진기 외, 『페미니즘 문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p.74.

을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으로 개인들에게 주입하여 내면화시켜왔으며, 근대 이후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차이 있는 직업과 역할을 습득시켜 적응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가부장제사회가 부여한 남성의 권위의식은 구조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국어교육에서의 여성이 배제된 문학작품의 소개에 있어서는 수업에서 남학생들은 물론 여학생들에 의한 남성상이나 남성의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기존에 학생들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고정된 남성상에 오히려 더 주목하게 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작품의 주 인물들은 권력이 부여한 현실에서 영웅의 모습을 지닌다.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여도 그 권위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한 권력도 권력이고 따라서 거기에도 정당한 힘이 부여된다는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작중 화자의 안내에 따라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작품 속에서의 초등학교 교실은 온통 남학생들뿐이다. 한병태의 엄석대에 대한 도전이 엄석대의 비리폭로와 급우들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갖지만 실제로는 헤게모니 쟁탈이며, 한병태의 좌절이 엄석대의 능력 자체보다는 급우들(집단)의 비겁한 자기 보호적 권력 추종의 탓이라는 점에서, 집단을 민중이라고 생각한다면 변혁의 주체나 역사를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은 민중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작품 속의 학교의 현실은 사회 전체의 현실과 상통하는 것으로 남성의 전횡적 권력,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은 흡사 가부장제에서의 아버지들의 모습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유교의 지배원리인 가부장제와, 권력에서 소외된 힘없는 자의 소리가 반영될 틈이 없는 작품 속의 현실과는 서로 닮아 있다.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법 즉, 대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목한다. 배우는 학생들의 코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이면서도 성적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의 서두의 등장인물의 소개에서 여학생들은 작품만을 통해서라면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갈등을 이끌어 가는 아버지와 아들은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틀로 인해 역차별을 겪고 있는 남성들의 모습이다. 음식의 조리법을 물어보는 것으로 조롱 받는 아들의 내적 갈등과 밑단이 풀어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의 원인이 어머니(아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공한 직장인이며 완벽한 아버지로 보여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의 원인으로 제공된다.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성 사회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가정’과 ‘학교’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사회화 기관에서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와 행동양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과 학교라는 사회화 기관을 통해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 의해 차별적으로 사회화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자연스럽게 편입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작품에서는 보여주지만 주인공 두 남성의 모습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아픈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운 아들, 그럼에도 그것의 극복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흔들리는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짐이 버거운 현대 남성들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에 물든 가부장제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던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부부가 나란히 사회생활을 하고 같은 경제력을 행사하고, 동등한 가사분담과 육아분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남녀 모두에게 이미 불합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이제는 남성이 해방을 외칠 때인 것이다.

3) 배타적 여성관

여성을 천사와 마녀로 양극화시키는 상투적 여성상이 확산된 이유와 문학작품에 현실적 여성 인물의 형상화가 부족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에서는 정치라는 용어는, 한 집단의 인간들이 다른 집단의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권력의 구조적 관계들과 장치를 가리킨다. 즉 집단과 집단 사이의 지배의 역학이 권력구조라면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지배적 남성이 종속적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녀간의 지배/종속 관계를 ‘성의 정치’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사회구조를 가부장제로 지칭한다.³²⁾

고전 설화나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의 연애 대상으로 선택되거나 청혼을 받는 모습은 남성들의 요구하는 가치 질서를 잘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이 만든 질서와 규범을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내면화해야 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여성 인물들은 외적인 투쟁보다는 내면의 투쟁을, 남을 정복하기보다는 스스로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고난을 감수한다. 문화적·사회적 질서의 힘을 가진 남성의 세계 속에서 여성은 결코 본래적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여성의 비극이 있다. 또한 여성이 금기의 대상으로 부정적 존재로 묘사되는 것과 연약한 존재로

32) 정순진, 『한국 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서울: 국학자료원, 1993), p.201.

혹은 현실에 적응하여 희생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전형적 가부장제의 모습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이다.

이러한 여성의 현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변부의 타자로 존재했던 여성의 자리와 무관하지 않다. 교과서에서 드러난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조차도 주제를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내용의 발췌 삽입으로 인해 같은 작품을 통해서 개방된 의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식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가치관에 주목하고 있는 폐단이 있다고 하겠다. 종말이 여성의 열(烈)의식으로 귀결되거나 어진 어머니와 순종적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내조에 헌신적이며 마음까지 착한 여성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끝없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을 갖게 하고 늘 타자로서의 여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부장제의 착취에 의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남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이 갈라져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데 여자의 학식 있음을 매우 못마땅히 여겨 여자는 글을 알아도 함부로 이를 쓰지 아니함을 미덕으로 삼았다. 따라서 예술적 재능이 출중한 여성은 스스로 기녀의 길을 택하거나 골방에 갇혀 외로움을 달래며 지내야 했고 뛰어난 작품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여성이 글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불태워 없애도록 유언을 하기도 했다.³³⁾ 유교적 가치관에서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여성에게 행해진 사대부들의 비난은 홍대용이 허난설헌의 시에 대해 “시가 여성의 정도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여자가 덕행으로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약간의 시로 이름이 썩지 않은들 무슨 다행함이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우리나라 부인들이 언문으로 편지나 쓰고 시가 있어도 밖에 내놓지 않는 것이 예(禮)라고 설명하고 있는³⁴⁾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여성 작가의 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따

33) 송지현, 앞의 책, pp.45-46.

34) 김진기 외, 앞의 책, p.77.

라서 교과서에 고전 여성작품의 부재가 남성 편향으로 거론될 수 없음은 이러한 반대에 부딪혔던 여성들의 자기검열의 결과로 인한 여성작가의 부재에서 비롯됨이었으며 이는 시대의 타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현실이었다.

전쟁의 뒷모습에 보여 지는 어머니와 여성, 현대 수필에서 인생의 심오한 성찰보다는 앞에 닥친 생계를 걱정하는 본능적 아내의 모습과 사랑 깊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진 남성중심의 사고가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을 중심에 두지 않으려는 가부장제의 횡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문학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강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상’, ‘구원의 여성상’,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며느리, 딸)상’ 등 대체로 소극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 ‘인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 ‘자기주장이 강하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여성’,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중심에서 소외된 타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고대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부’와 ‘타자성’은 바로 남근주의나 이성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중심을 전복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전략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³⁵⁾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한 자리가 주변부이며 이 주변부에서 지금까지 타자로 살아온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 ‘주변부’와 ‘타자성’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자리는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5) 김해옥, 「한국 여성소설을 통해 본 ‘근대성’과 ‘여성성’의 대위법」,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서울: 깊은 샘, 2000), p. 19.

Ⅲ.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면 각각 남녀간의 사랑, 가족애와 어머니의 사랑, 민족의 수난의 극복과 화해, 이상적 삶의 방식을 희구하는 인간의 모습, 부조리한 현실 또는 인간에 대한 비판 등으로 모을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체험을 통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공동체의 확립으로 나아간다는 문학의 목표와 관련된 이상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교과서에는 다양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성의 삶은 절대적으로 남성의 예측적 위치에 놓여져 있으며 유교에서 주장해온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 정절의식의 강조, 삼종지도를 따르는 현모양처의 지향 등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상이다.

잘 제시된 주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성상이나 남성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주제와 동떨어진 채 표류하는 여성인물의 모습이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 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남성인물들이 사회와의 조화나 전체성의 개념을 획득해 가는 ‘발전의 서사’를 경험한다면 여성인물들은 가정으로의 복귀나 소극적인 저항에 만족해야 하는 ‘생존의 서사’를 경험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인물들이 무엇을 이룩했는가 보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생존의 어려움을 인식시켜주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

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삶이었기 때문이다.³⁶⁾

앞에서도 언급했듯 교과서의 편제의 한계로 소설작품의 부분발췌 수록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전체의 여성상 혹은 남성상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과서에 부분 수록된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이 배우는 문학작품은 부분적으로 발췌 수록된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의 수업에서도 작품 전체를 개괄하고 난 후에 단원에서의 작품의 의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상의 파악이 교과서 수록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여성상의 파악이라는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성은 무시간대의 추상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성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성이 무엇인가를 살필 때 어떤 공간,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느냐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1. 금기의 현실원칙과 순종적 여성 - 성(性) 이데올로기

설화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금기 역시 여성의 정체성을 속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설화의 구비전승자들이 공유했던 당대 이데올로기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36)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문학 속의 여성』,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2), pp.58-59.

「무왕설화」에서 보면 당시의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된 선화공주는 남성 중심의 기존 사회질서에 의해 중심에서 쫓겨난 이른바 부정한 여성이며 남성세계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 집안에서 버림받은 여성의 모습이다. 선화공주는 삶의 본질이나 체제의 원리 어느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이한 출생과 출중한 능력을 가졌지만 평범하게 생계를 유지하던 인물 서동이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동요를 퍼뜨려 궁궐에서 쫓겨나 귀양 가게 만들고, 귀양 가는 선화공주 앞에 나타나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왕이 된다는 이야기로, 선화공주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유순한 여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귀양 가는 도중 나타난 서동을 기존의 통념으로 경계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미덥고 호감이 가는 자신의 느낌과 의지에 따라 대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간 금의 가치를 인지하여 자발적인 생계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서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키도록 도와 서동보다 지적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미륵삼존의 현현을 예사로 넘기지 아니하고 큰 절을 세울 것을 발원할 만큼 내적인 성숙함도 보여준다.

여자로서는 금기였던 정절에 손상이 가는 추문으로 인해 쫓겨난 선화공주는, 체제의 질서에 순응한 순종적 여성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 내적 자아의 미숙함에서 깨어나 자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밟게 되며,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여성의 모습을 선화공주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미혼의 여성으로서 추문이 나면 행실이 나쁜 여인이 되는 금기의 현실, 딸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는 금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 이데올로기의 모습이다.

인색한 부자의 악행에 따른 처벌과는 다르게 너무나 부당하게 주어지는 금기를 가로막는 것은 현실에 대한 미련이다. 그 미련을 버리고 초월적 질

서에 순응했을 때만이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는 것이다. 「용소와 며느리 바위」의 착한 며느리 역시 현실원칙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 「용소와 며느리바위」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금기와 관련된 주변부를 만든다. 한 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판단될 때, 그 사회는 언제나 내부에서 가상의 적을 발굴하여 이른바 ‘마녀 사냥’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희생양을 만들고 학대함으로써 위협받는 경계는 다시 그려지는 것이다. 한 집단이 지향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집단의 중심가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집단의 도덕 목적을 재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³⁷⁾

「송인」에서 여성화된 시적 화자는 더욱 더 여성적이며 간절하다. 이는 「진달래 꽃」에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는 지고지순한 여인의 목소리와 함께 이별의 고통을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참고 견디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인고의 여인이다. 여인의 정조, 정서는 ‘한’, ‘슬픔’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는 고전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여성화된 정조³⁸⁾

37) 유제분, 『페미니즘의 경계와 여성문학 다시 읽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121.

38) 남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모든 여성적 심리적 경향들을 문학작품 속에서 여성화된 분위기나 느낌, 정조 특성으로 여성 취향화하여 밀도 있게 고조시키거나 작중인물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특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여성 편향성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모든 여성적 심리적 경향들이 인격화되어 복합적인 감정의 총체로 이루어진 여성적인 정서

의 표현인 동시에 그 시대 여인들의 표상이며 특성인 것이다.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여성을 형상화하는 관점의 근거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성성이라는 개념이 남성중심적인 힘의 논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현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 내부에 적층되어 온 여성성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을 정형화 고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에서는 전쟁이나 전란으로 인해 남녀간의 사랑과 혼사가 장애를 겪는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별의 원인으로서의 전란은 장애의 모티브로 이는 금기에 의해 억압된 욕망은 더 절실해지고 주인공의 이별은 안타까워지는 것이다. 「그 여자네 집」의 곱단과 만득의 사랑은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벌어진 전쟁 탓에 만득은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고, 곱단 또한 정신대라는 전쟁이 만들어 놓은 금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곱단은 만득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여자의 칠거지악이라는 금기로 인해 버림받은 여자의 자리에 재취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만학이었던 만득이는 읍내의 사 년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병으로 끌려나 갔다.

... 중략 ...

만득이네 대문에 일본 깃대와 출정 군인의 집이라는 깃발이 만장처럼 처량히 휘날리고, ... 그렇게 그까짓 열흘 눈 깜박할 새가 지나가 만득이는 마침내 입영을 하게 됐다.

... 중략 ...

아주 나쁜 소식이 엽병보다 더 흉흉하고 견잡을 수 없이 온 동네를 휩쓸었다. 전에도 여자 정신대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을 아니마라 한다. C.G. Jung,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집문당, 1993), p.152.

... 중략 ...

곶단이 부모로부터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구해 온 곶단이 신랑감이었다. 첫 장가 든 부인이 십 년이 가깝도록 아이를 못 낳아 내치고, 새장가를 든다는 그는 곶단이의 그 고운 얼굴보다는 별로 크지 않은 엉덩이만 유심히 보면서, 글썽,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연방 고개를 가우뚱, 그닥 탐탁지 않아했다고 한다.

- 「그 여자네 집」

전쟁이라는 질곡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었던 여인으로 자신을 수없이 질타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곶단의 모습이 死者를 분장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며 표정도 없지만, 결국 그녀의 자리는 시대의 질곡이 파놓은 함정인 것이다. 무참한 현실원칙에 의해 곶단의 욕망은 좌절되고 죽은 듯 순종하며 주어진 운명에 따른다. 전란으로 인한 시대의 금기는 또 다른 여인인 순애에게도 똑같이 작용한다. 애들에게 잘하고 죄 지은 것 없이도 죽은 시늉도 하라면 하는 남편을 두고서도, 삼천만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기쁨과 숨결을 빼앗아 버린 천인공노할 범죄인 현실의 원칙 앞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하는 것이 헛된 욕망일 뿐이다.

여성이 주변부적 존재로 소외되는 코드는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대 이후, 이성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을 반이성적·감성적 존재로 위상 지으면서 강화된다. 이성은 위대한 것이나 여성은 반이성적이다. 이러한 이분화는 근대의식에서 여성은 곧 타자임을 보여준다.³⁹⁾

「맹 진사 댁 경사」에서는 결혼적령기의 두 여성 갑분이와 입분에게는 냉철한 사고가 없다. 갑분이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지만 세도가문과 사돈을 맺으려는 맹 진사의 허욕이 그녀의 자리이고, 입분이는 갑분이의 몸종이며 봉

39) 변신원, 「여성문학과 일상성」,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 (서울: 예림기획, 2003), p.333.

건제도의 하위층의 자리, 무엇이든 시키면 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자리이다.

일생의 중대사인 혼사에서도 입분이는 당사자로서 아무 권리도 없다. 세도가문의 권력이 옮겨놓을 자리가 또 그녀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입분이의 모습이 김판서의 아들인 명정의 마음에 들어 명정은 스스로 없는 신체적 결합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갑분이와 입분이의 자리와 의도적으로 바꾸어지도록 꾸미게 된다. 명정의 의도대로 입분이는 갑분이 대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일 뿐, 타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며 자신의 주체적 의지는 없다. 갑분이는 또 어떠한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집안에서 추천해 준 세도와 권세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 생각하며 살아온 여성이며, 신랑의 내면이 아닌 겉모습만으로 요동치는 자리이다. 자신의 자리에 대해 확고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그녀에게는 그나마 집안에 의해 주어진 수동적 자리도 차지할 수 없으며 중심에서 멀어질 뿐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는 없다.

귀한 집의 외동딸이든 천한 몸의 종이든 두 여성에게는 가부장제와 주종관계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타자로서 허락된 주변부의 삶에서 주체적 판단 없이 절대적 부권에 따라 순종만이 요구되던 타자로서의 삶이 그들의 자리인 것이다.

가부장제 하에서는 가장의 통솔 아래 가족 성원 모두가 재화 생산과 생명의 재생산에 참여했으며, 이 같은 생산과 재생산 활동은 성별 분업과 남녀간의 지배관계, 남성들 간의 연장자와 연소자라는 위계관계를 만들어 낸다.

김유정의 소설에서 부권은 아내·여자·자식을 돈으로 환산 한다. 봉필영감이 자신의 딸들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봉필은 딸을 데릴사위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매개로만 생각한다. 그는 딸을 인격체로 인정하기보다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 수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절대적 부

권을 보여준다. 「봄·봄」에서 작가는 가족과 여성을 통한 욕망해결의 방법을 제시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 여성을 낮게 평가하는 이데올로기, 연장자의 지식 통제를 이용한 권위 등의 가부장제도의 모습들이 깊이 드러난다.

가족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김유정의 소설에서 흔히 목격되는 일이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매춘과 같은 비윤리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김유정의 소설에서는 인신매매와 매춘이 목인되는 모습과 가부장제도의 잔재인 부권의 횡포⁴⁰⁾가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 장인님은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살 때부터 열아홉 즉 십년 동안에 데릴사위를 갈아드리기를, 동리에 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낮지만은 열네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러먹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 하는 놈을 고르누라고 연팡 바꿔 드렸다.

자식을 물신화의 대상으로 삼는 가부장제의 횡포는 딸자식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택하는 계층은 여성과 미성년이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힘의 질서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위계구조, 즉 남성-지배, 여성-예속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장인을 향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기형적인 결혼 형태의 불합리를 폭로한다. 그렇지만 ‘나’는 경제적 약자로서 일제치하라는 시대적 상황과 지

40) K. 밀레트, 정의숙 외 역, 『성의 정치학』, (서울: 현대사상사, 1983), p.68.

주에게 당하는 이중의 꺾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피지배 위치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시대의 상황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는 위치에서 있는 점순에게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여성의 자리가 주어진 것이다.

2. 여성의 지위와 열녀(烈女) - 정절 이데올로기

열(烈)은 남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신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남존여비라는 중세적 가치관을 함께 내포한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관계로 변질되어 간다는 점에서 신의는 더욱더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는 반면 남존여비사상은 인간 평등이라는 근대이념의 실현을 위해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충과 효가 남녀 모두에게 부여되는 덕목이라면 열(烈)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열의 다양한 형태와 출현 배경은 남성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때로는 투기 없이 나란히 한 남자의 그늘 아래 종속된 여인의 모습이기도 하며, 부재인 남편의 자리에서 묵묵히 며느리로서 끝까지 가정의 제사를 받드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층민의 열(烈)은 시대의 억압에 저항하며 스스로 열녀의 굴레를 쓰는 모습이기도 하다.

『구운몽』에서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먼저 양소유의 어머니 유씨 부인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유씨 부인은 소유의 나이 10세 때 남편을 여의고 오직 소유 하나만 의지하며 지냈고, 표형(表兄)인 두부인(杜夫人)에게 서신을 띄워 소유의 혼사를 주선케 하였다. 그녀는 아들 소유의 앞날을 깊이 걱정하고 입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인도자였다. 유씨 부인이 허구적 인물이지

만 작가 서포의 인물 구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이라는 점은 창작 동기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 속에 구현된 여덟 여성의 형상을 보면 남성적 사고의 결과물로서의 여성의 굴절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각자 처한 위치와 지위에서 뚜렷한 개성을 지닌 여성들로, 정숙하고 슬기로운 정경패, 귀하고 기지에 넘치는 이소화, 첫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고난을 감내한 진채봉,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난 가춘운, 곧고 아름다운 계섬월, 선비 같은 언동의 적경홍, 매서운 면을 지닌 심요연, 신비의 세계에서 온 백능과 등으로 이들의 성격은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질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매혹적인 것이다. 결구의 대단원에서 이들은 모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되고, 마침내 한 자리에 모여 극락왕생할 것을 발원하게 된다. 이들 각자의 개성은 하나의 전체적인 여성상으로, 각각은 여성으로서의 이상적 형상을 지닌 인물들이지만 서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인 복합적 모성상으로 귀결된다.

각각의 인물들은 고전에서 보기 힘든 개성과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들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적극성과 결단성을 지닌 인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낮은 여인이 양반과 결연하여 첩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는 것은 신분적·경제적 안정 획득의 소망으로⁴¹⁾ 이러한 예는 서포의 다른 작품인 「사씨남정기」에서 교채란이 가난한 양반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첩이 되기를 희망하는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여장을 하고 규중에 들어온 양소유와 마음을 교환하는 정경패는 사랑하지만 자신을 속인 것에서 혼인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다. 부모도

41) 김석희, 「서포소설의 주체시론」, 『선청어문』 18,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989, p.242.

권하지만 정경패는 결국 자신이 당한 수치를 갚고 난 후 혼사를 승낙함으로써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여인이다. 이소화는 공주로 여덟 명의 여성 중 가장 신분이 높지만 부당한 혼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자발적으로 제2부인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요연과 백능파는 각각 전생의 연분으로 양소유와의 결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야하는 도전적인 삶을 사는 여인들이고 양소유에게 새로운 생명과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고 감당하는 인물들이다. 정경패의 시비인 가춘운은 정경패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스스로 양소유의 첩으로 들어간다. 시비라는 한계에 있지만 그 위치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형식적 구분이 있을 뿐이며 정경패와 인생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다.

서포는 작품에서 어머니를 위해 다양한 자질과 성격적 특성을 지닌 여성 인물을 창조하였으며 이는 사대부였던 당시 사회의 가치관에 충실한 남성에 의한 창조이다. 이들 인물들의 각각에 드러나는 개성은 현대 여성들에 못지 않은 다양성을 보이지만 작가가 위치한 시대의 범주는 벗어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는데, 결국은 시대가 허용한 범주의 전형인 한 남성만을 바라보고 평생의 삶을 기대는 열녀의 모습, 일부다처제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삼종지도⁴²⁾는 여성에게 일생 동안 오로지 ‘종(從)’으로 일관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은 일생동안 자신을 지배하는 남성에게 오로지 순종·묵종할 것이 요구되며 그러기에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도 용납되지 않았다.

「허생전」에서 허생의 처는 사건을 발단시키는 인물이며 생계유지에 지친 아내이다. 당돌하고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냉정하고 이론적이다.

42)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상·공문제의 제기는 범상한 여성으로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녀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여필중부의 유교적 기풍에서 탈피하려는 근대적 여성을 느낄 수 있다.⁴³⁾ 그러나 그녀는 남편 허생이 혼자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내의 본분을 잃지 않는 충실한 여성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키려하는 유교적 질서에 충실한 모습이다. 결국 허생의 처는 부부유별이라는 유교적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시 사회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당대의 윤리적 가치인 이데올로기에 순종하여 그 윤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성적이고 적극적이지만 한 남편을 끝내 기다리고 따르는 이 중성격의 여성인 것이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합니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해야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원 맥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지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지요. - 「허생전」

여인이 남편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은 중세 열(烈) 이념의 교화에 의한 것으로 소리 없이 나간 남편을 수년간 기다리며 가문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허생처의 일부종사의 모습이다.

43) 최응권, 「박지원의 소설과 그의 여성관」, 『여성가족생활연구』 제4집, 명지대여성·가족생활연구소, 1999, p.203.

남존여비의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던 이조시대 가부장적 유교체제 아래에서 그것도 남성 작가의 작품 속에 투영된 여성에게서 여성 스스로의 성적 의식의 흔적을 찾는 것 자체가 주관적(비합리적, 비이성적) 발상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여성들은 그 틀을 깨고 나오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고소설의 작중인물의 여권의식 과정은 남성모방의 단계에서 남녀 갈등(저항)의 단계로, 다시 인간적 조화의 단계의 3단계를 밟는다.⁴⁴⁾

고소설 중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춘향도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열녀의 모습으로 매듭짓는다. 『춘향전』의 춘향은 당대의 여성에게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신분적·사회적인 조건과 동떨어진 여성이다. 양반계급의 서녀⁴⁵⁾로 기술되고 있지만 실제로 천민계급으로 간주되던 기녀의 딸이며, 기녀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층계급의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춘향은 당대의 가치에 맞서는 자유분방하면서 열정적인 모습과 억압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배적인 남성이나 기존의 현실에서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즉 지배적 가치나 체제에는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 여성이다.

춘향은 광한루로 찾아가서 이도령을 만나자마자 “마음에 흠모하야 아미를 수기고 염슬 단좌”하였으면서도 이도령의 결연 요청에는 거절한다. 이는 냉정하고 이지적이며 논리적인 춘향으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짓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춘향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열등의식, 천인 신분에 대한 의식이 그러한 행동을 가져온 것이다.⁴⁶⁾

44) 김현용, 박용식 편저, 『고전문학 새 조명』, (서울: 박이정, 1996), p.461.

45)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그러나 춘향은 이도령에 대한 애정이 항구적이라는 확신이 들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인다. 같은 이유로 변학도에게는 생명을 걸어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변학도는 처음부터 일개 천기 이상으로 춘향을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춘향의 신분적 열등의식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결이 될 수도 없다. 자신이 가진 신분적 열등의식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성취동기로서의 이도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그것을 짓밟아 버리려는 변학도에게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춘향의 상반되는 행동은 성취동기가 충족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양반 독하도다. 원슈로다 원슈로다 존비귀천 원슈로다...

이도령이 떠나게 되었을 때 이도령에 대한 분노는 계급제도에 대한 분노로 대치된다. 이도령이 굳은 언약을 남기고 떠난 후 변학도의 등장에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열불경이부절을 외친다.

충분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을 본받고자 하옵난디 수차 분부 이러한이 심불여사이웁고 열불경이부운이 처분디로 하옵쇼셔.

이는 당시 사회의 가치규범으로 이러한 사회의 가치가 춘향의 입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주장된다는 점은 자신의 성취 욕구가 사회적인 가치를 수단으로 삼을 만큼 강렬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학식과 예능에도 소양이 깊었으며 예의범절도 밝고 선천적인 미모를 타고 난 재원

46) 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박이정, 1993), p. 221.

으로서의 춘향은 자기의 능력과 자존심에 부합되지 않는 천인이라는 신분에 상처를 받는다. 때문에 양가 규수에게 적용되는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규범을 끌어와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한다. 상하가 엄격한 사회에서 지배계층의 가부장적 질서를 들이대면서 충효열녀에 상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춘향의 강렬한 의지는 곧 보상을 받게 된다. 떠난 이도령에게서 소식이 없고 변학도의 횡포는 거세어만 가지만 춘향은 자기중심적이고 단정적이며 자존심 강한 여성이다. 그녀는 성취동기의 대상을 실현 가능성 있는 다른 것으로 곧 전환한다. 춘향이 옥중에서 걸인 낭군을 만나서 늘어놓는 사설에서 춘향은 성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만임 나 죽은 후의라도 원이나 업게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장
안의 들어쓰니 그 옷 너여 파라다가 한산세져 박구워셔 물식 곱게 도포 짓고
빅방사주 진 초미를 되는 디로 파라다가 관, 망, 신발 사되리고
... 중략 ...

나 죽은 후의라도 나 없다 말으시고 날 본 다시 섬기쇼셔.
... 중략 ...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울여다가 선산 발치의 무더 주고 비문의 식기기를
슈절원사춘향지묘라 야달 자만 스겨 주오, 망부석이 안이될가.

춘향은 자신의 좌절된 성취 욕구, 일그러진 자애(自愛)를 대중에게서 보상 받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절 의식이 자신의 성취 욕구의 수단이 되었던 것에서 수절 자체가 목적으로 승화하게 되는 것이다.

춘향은 밝고 긍정적 성격의 심층에 도사린 신분적 열등의식을 이도령과의 애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남성과 당당히 말을 주고받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처지와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변학도와와 같등을 통해서 일부 계층에게만 통용되던 가부장적 여성억압의 도구인 열녀의식을 수단으로 삼으면서까지 대립하고, 후에 진정한 열녀로서의 모습으로 자신의 욕구가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일관되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춘향의 사랑 성취담은 여성 해방적, 인도주의적 여권의 회복과 직결되며, 신분은 반쪽 양반이지만 순수한 사랑,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애착을 갖는 여성으로 자신의 욕망을 결국 성취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이 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한 춘향은 천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계급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을 이루어 낸 입지전적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여성을 억압하는 견고한 사회적 규범을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제한된 여성의식을 드러낸다.

춘향이 지켜낸 열행(烈行)의 모습은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 거부된 사회에서의 하층 여인의 열 이념의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열은 내부지향적인 도덕률인 반면, 충은 외부 지향적 도덕률로 여성과 남성의 내·외의 분별이 분명한 사회에서 춘향의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자리는 가부장제 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경계 밖으로 몰아 낸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주변부인 것이다.⁴⁷⁾ 결국 춘향의 성취는 크고 값진 것이었으나 여성의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취로 지배적 가치에 순응한 열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의식의 개화는 여성교육의 기회의 확대와 교육받은 여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에게 자기비판과 자아반성의 정신을 불어넣게 된다. 이렇게 등장한 신여성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등장한 신여성들로 여성운동 계급운동 민족

47) 유제분, 앞의 책, p.123.

운동 등을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입장표명에 나선 여성들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신식교육을 받았거나 근대적 직업에 종사한 기능적 의미의 신여성이다.⁴⁸⁾

서학의 전래로 인해 여성들은 여자도 독립된 한 인격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여성의 자기발견의 단서가 마련되었다. 근대사회 이후의 여성들의 교육은 유가적 봉건사회의 여성들에게 자기비판과 자기반성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여성에게는 정숙, 순종, 근검절약의 행동규범과 함께 자애, 화목, 온화를 겸비한 현모양처가 바람직하고 교육적인 인간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가정에서는 구여성으로서의 의무를 사회에서는 신여성으로서의 몫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었다.

신여성의 조건을 갖춘 흥경애 역시도 작품 속 현실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제에 반하여 사는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근대의 모습인 돈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반봉건에는 아직은 인색한 남성들의 의식을 찾을 수 있다.

『삼대』의 신여성 흥경애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신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훈의 아이까지 낳게 되지만 버림받고 술집 여급으로 나가면서 생계를 꾸리는 여성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독립운동가를 도우며 새로운 가치를 지닌 주체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그녀에게는 신여성의 두 양상이 모두 드러난다. 경애는 신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성으로서의 획기적인 직업에 종사하기도 하며 독립운동을 돕기도 한다. 경애에게 주어진 삶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 그 자체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녀는 다른 여성의 모습에도 관심을 돌린다. 자신과

48)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앞의 책, p.11.

똑같은 첩의 자리로 들어온 의경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거쳐 온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필순에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길을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자신이 겪은 좌절과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야 내다 잘 알아요. 하지만 한 살이라두 더 먹은 내 말을 잘 들어 두란 말예요. 하지만 이 꼴이 된 내 처지를 잘 보아 두란 말예요.”

경애의 말은 어느덧 동생을 타이르는 형의 말씨같이 정다우면서도 심줄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첫 인상이 좋은 데서 경애는 도리어 동정이 갔으나, 이애가 낮에는 유치원에서 천사같이 나비춤을 추고, 밤에는 술상머리에 앉는고나!고 생각하니 경애는 속으로 혀를 찼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의경을 나무라는 것인지 세상을 한탄하는 것인지 또는 자기 자신을 혀를 차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겠다.

- 『삼대』

경애는 동시대의 비슷한 운명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유교적 가치관으로부터 고립과 소외를 겪는다.

성적 핍박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정절녀의 신분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신여성 경애에게 부과되는 정절 이데올로기는 억지에 가깝다. 아버지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자신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를 은근히 요구하는 덕기의 입장은 작가의 중간자적 입장과 맞물려 더욱더 정체가 모호하다. 덕기가 아버지의 여자인 경애에게 보내는 비판적 시선은, 비록 첩이라도 축첩한 남편을 따르라고 하는 정조윤리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애의 지위는 여자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사회, 구식 봉건사상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대의 주변부에 주어진 것으로, 새로운 세계에의 지

향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충실하라는 논리를 경애에게 요구하면서 여성의 변화를 타락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3. 생존의 서사와 어진 어머니 - 모성 이데올로기

여성은 무엇보다 아내이며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마땅히 시집살이도 잘해야 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현명하게 잘해야 하며 어진 아내 역할도 잘해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여성상인 것이다.

시집살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해보지 않았던 가사노동에의 전업을 의미한다.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소경 3년이라는 기나긴 인고가 요구된 삶,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이 요구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착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차이를 체험한 서정적 자아가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사모곡」에서는 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을 예찬하고 있고, 「자모사」에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말하고 있다. 「추억에서」의 어머니의 슬프고 한스러운 생애, 「여승」에서 여승으로 대변되는 한 여인(어머니)의 삶의 궤적 등 체념의 미덕과 함께 깊숙이 숨겨진 원망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다.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골계적으로 대하고 있어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주고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운데, 화자는 그러한 고통을 가하는 식구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힘든 처지를 희극적으로 드러내어 고통의 무게를 벗어내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의 과장된 말과 상황의 설정 등은 집안의 온갖 노

동에 노출된 여성들의 고통을 희석시킨다기보다는 더 절실한 자기 고백으로 들려지며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살아온 생존의 서사이며 살아내기 위한 처절한 외침인 것이다.

남성작가의 작품인 「눈길」, 「장마」, 『광장』 등의 소설 작품에서의 여성(어머니)의 모습은 대개 공통적인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자아정체성 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희생과 봉사를 대변하는 모성성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결말은 좌절된 여성의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로운 위치는 단지 어머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성성의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관습이 여성을 독립적이 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선택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모성이테올로기가 타인들의 시선이 여성으로 하여금 모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 문을 닫도록 만든다는 것이다.⁴⁹⁾

모성은 분단 소설에서 부성성으로 대변되는 역사적 현실의 혼돈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상상적 주체이며 모성의 발현은 격심한 사회변동과 결부된 것으로 여성성과 모성은 회복과 재생을 위한 전략적 주체로 샤머니즘이나 제의적 성향과 습합된다. 또한 어머니(모성)는 해방이후 분단 상황에서의 폭력성에 희생과 수난을 강조하는 사회 내에서 현실을 수동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성원 집단의 대표적 존재로서 나타난다.

「장마」에는 두 어머니가 등장한다. 초등학교생인 어린 관찰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할머니이지만 이들은 각각 빨치산인 아들과 국군을 둔 어머니이다.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한 가정의 비극과 극복의 과정 속

49)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앞의 책, p.57.

에서 아픔을 토속적 민간신앙, 즉 내부적인 것으로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이라는 민족의 상처가 토속적 힘과 본능적인 모성에 의해 치유되고 있는 것이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모성을 지닌 여성일 뿐이다. 그들이 살아온 현실은 가족, 자녀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한 삶이다. 생계의 위협하는 어떤 것도, 그것이 전쟁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가족을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각자의 자식을 두고 벌어진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처는 무의미하다. 그들이 지닌 넘치는 모성만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해결방법일 뿐이다. 외할머니의 아들이 죽고, 또 친할머니의 아들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모성은 하나로 합쳐진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 일이 못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덜도 모다 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 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헐디로 가소.”

.....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어 장만헌 것일세. 먹지는 못 헐망정 눈 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야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려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말고, 집안 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테 편안히 가소.”

- 「장마」

외할머니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다래끼 단단히 별인 이후로 처음 있

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라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딱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올 다..... ”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헐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헌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로시렸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께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뭘이나 잘추시리 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 「장마」

사돈지간의 두 어머니는 집안으로 들어온 구렁이를 구슬러 머리카락을 태워 삼촌의 혼을 천도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민족적 제의(祭儀)를 주관하는 사제로서 모성적 성격이 재현되고 있다.

두 어머니의 화해는, 현실은 참혹하고 음산한 것이지만 이념을 넘어선 이해를,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힘인 모성적 포용력을 공통적 분모로 내세우고 있다. 그 화해의 과정 속에서 한(恨)의 정서와 그 한(恨)의 해소방법으로서의 샤머니즘이 제시되며 이러한 것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지닌 모성의 근본인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주변화 된 존재로서 폭력적인 현실에 가담하지 않고 거리를 둔 채 희생자의 편에 서서 모성은 이념과 잔혹한 살육의 현실을 거스르면서 인간애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수용, 넘볼 수 없는 희생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의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이래로 아버지의 위엄과 권위에 반하여 어머니의 존재는 언제든 늘 마음의 고향이고

안식처였다.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기에 앞서 자식의 안위와 생계를 염려하였 으며, 고운 옷감이나 편안한 자리에 냉정히 눈을 돌리고 자식의 입을 것과 잠자리를 챙기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눈길」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내심 “빛이 있을 수 없는 텅텅한 처지”임을 자처하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 냉담한 태도로 일관해오던 중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아내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지난 시절에 대한 회상은 자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아들의 심리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아들이 내세우는 ‘빛’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처신을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는 어떤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가늠하려는 아들의 다소 알팍한 현실논리는 어머니의 과거 행적 속에 숨어 있던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행위 앞에서 여지없는 부끄러움으로 무너지고 만다. 작품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 현실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에서도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확인케 한다.

모성이 순수를 가장해 교묘하게 강요해온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흠집을 매우고자하는 도구로 쓰여 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그 내면에는 자아와 수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세계와의 타협을 통해 선택한 것이 지금의 모성상이며 이러한 모성은 강요되거나 고정화된 획일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어머니들의 냉철한 지혜의 소산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의 모성성은 앞의 두 모성과는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 윤애와 은혜는 이명준의 삶의 대칭점에 있다. 이명준의 행적을 따르다 보면 그가 현실에서 고통과 좌절에 부딪혔을 때 두 여성이 등장하며 그에게 삶의 의미

를 부여해 준다. 명준이 찾고 있는 진정한 광장과 안식의 밀실은 각각 바다와 동굴로 표상 되는데, 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두 여성이다.

작품에서 여성은 자기희생적인 맹목적인 자식사랑이나 편협한 가족이기주의의 틀을 넘어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현실과 대비되는 보다 적극적인 상징성을 부여받는다. 그것은 여성이 지닌 모성적 특징을 남성적 힘에 의해 주도되어온 현실의 부정적인 양상들과 대비시킴으로써 모성의 이미지를 그와 같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반성적 기제로 다루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명준은 아버지가 대남 방송에 나옴으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겪게 되고, 그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의 공간이 남한의 광장임을 느낀다. 그리고 남한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타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윤애를 만난다.

남한의 체제에 절망을 느낀 명준이 찾은 북한 역시 개인은 없고 인민만 있으며 밀실은 없고 광장만이 존재한다.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소통의 공간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의 늪에 빠져들게 될 때 또 다른 여성 은혜가 등장한다. 은혜는 명준에게 있어서 단순한 위로나 순간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다.

두 여성은 주인공에게 연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에 더 가까운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 윤애와의 관계에서 화자는 “‘사랑’이란 말 속에, 사람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의 모든 걸 집어넣는다. 그런, 잘못과 헛된 바람과 헛된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이 바로 사랑”⁵¹⁾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명준은 윤애와

50) 박혜경,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 『한국문학과 여성』,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p.124.

의 사랑 속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투사하고 있다. 은혜와의 관계에서도 화자는 “가슴과 머리카락을 더듬어오는 손길에서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와 아들, 아득한 옛적부터의 사람끼리의 몸짓”⁵²⁾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 명준은 두 여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잃어버린 모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개작을 통해 주인공 명준의 죽음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개작 이전에 이명준이 남쪽에서 사랑했던 여인 윤애와 북쪽에서 사랑했던 여인 은혜로 표상 되던 갈매기가 은혜와 은혜의 딸로 표상 되는 것으로, 전작에 단지 잉태에 대한 암시만 있을 뿐 전사한 은혜의 뱃속에서 실제로 태어나지 않은 채 죽어버리는 그 새로운 생명이 아들이 아닌 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개작 이전의 갈매기의 표상을 명준의 죽음을 통해서 살펴볼 때 윤애와 은혜는 양 체제에 발을 딛고 설 수 없었던 명준의 실패한 삶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개작 이후 은혜와 은혜의 딸로 바뀔 경우 명준의 죽음은 은혜의 자궁 속에 잉태된 새로운 생명에의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향해 열린 미래지향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모성적 이미지를 통해 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작가의 의도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준의 삶을 좌절로 몰고 간 체제의 논리, 체제를 움직이는 근본적 힘이 남성 권력에의 의지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사랑의 논리, 감정의 논리가 「광장」의 두 여성 윤애와 은혜의 여성성 또는 모성성으로 귀결된다.

(.....) 명준은 일어나 여자의 배를 내려다봤다. 깊이 패인 배꼽 가득 땀이 괴어

51) 최인훈, 『광장』,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p.79.

52) 최인훈, 위의 책, p.130.

있었다. 입술을 가져간다. 짭사한 바닷물 맛이다. “나 딸을 낳아요.” 은혜는 정그럽게 기름진 배를 가진 여자였다. (.....) 그 기름진 두께 밑에 이 짭사한 물의 바다가 있고, 거기서, 그들이 딸이라고 불리울 물고기 한 마리가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양쪽의 지배원리로 인한 폭력이 극에 달했을 때 명준은 윤애와 은혜를 찾아가 사랑을 한다. 두 여성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원동력이며 폭력적 지배를 해소시키는 힘으로써 그녀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준의 어지러운 현실인 체제와 남성 중심적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결국 윤애와 은혜는 작품에서 명준으로 하여금 의해 주어지는 현실을 수용하고 포용하게 하는 비어있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다.

작가는 작중인물을 통하여 작품에 개입한다. 명준은 두 여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잃어버린 모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작품을 통해 구현되는 여성은 ‘관념철학자의 달걀’ 이명준에게 곱게 비취지 않는다. 여기에서 명준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들 여자란, 남편이나 애인이 아닌 남자한테도 꼬리를 치는 타고난 갈보라지만, 시시한 소리다. 여자보다 더 쩌쩌한 남자도 얼마든지 있다. 나 같은 놈이 바로 그렇다. 남자는 썩썩해야 된다? 여자는 상냥스러워야 한다? 시시한 소리다.

여기서 그는 여성의 부정적 특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준의

이 말은 자기 경멸이나 자기 비하 상태에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을 빼고 작품 전체를 통하여 여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깔보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화려한 원피스로 차리고, 손이 닿을 거기에 다소곳이 선 ‘물 자체’였다. 부드러운 살결이 벽처럼 둘러싼 이 물건을 차지해보자는 북받침이, 불쑥 일어난다.

... 중략 ...

오호, 그렇겠지요라구. 이 텅 빈 말. 귀밑머리가 구름처럼 나부끼는 그녀의 옆얼굴을 쳐다보며, 명준은 알 수 없는 미움이 치받쳤다.

“바다와 산, 어느 편을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요. 산은 산대로 맛이 있구 그렇잖아요?”

주여, 이 깡통을 용서하옵소서. 일곱을 일흔 번 하여 용서하옵소서.

윤애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문학도로서, 조리가 바르고 야무진 여성임에도 그녀에 대한 명준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반면 은혜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다. 냉철한 두뇌의 소유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 한마디로 ‘무지한 여자’인 은혜에게 그는 윤애와는 다른 시선을 보낸다.

이 여자가, 인민을 위한 ‘예술 일꾼’이며, 인류의 역사를 뜯어고치는 거창한 대열에 발맞춰나가는 ‘여성 투사’라? 좋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은혜다. 내 거다. 그 밖에 그녀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 것일 수 있다.

... 중략 ...

은혜는 많은 여자가 그런 것처럼, 꼭 어느 사회가 아니면 못 산다는 여자가 아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될 수 없는 여자였다. 이 독일 여자처럼,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경제학으로 풀이할 만한 배움도 없었고, 나름도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사상을 아랑곳않는 데에 명준은 가다가 놀랄 때가 많았다. 명준에게는

그것이 좋았다. 무지한 여자한테서 쉼 데를 얻자는 저 좋을 마련만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두 여성을 화자는 “윤애와 은혜의 똑같은 말은, 뜻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다. 윤애의 말은 악마에 빌붙는 천사의 그것이었다. 은혜의 말은 애인 앞에서 뉘우치는 죄지은 여자의 그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을 남성과 같은 차원에서 보지 않고 지적인 면에서 열등한 존재로 보듯이, 윤애와 은혜를 비교하면서 여성을 단순히 남성을 위한 대상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명준의 죽음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모성적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대안의 논리가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와 적극적으로 맞서는 어떤 현실 논리의 층위에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현실을 비껴가는, 어머니와 자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현실 이전의 어떤 원초성의 공간을 통해 다분히 관념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추상의 형태로 남아있는 윤애와 은혜를 작품 속에 등장시키는 방식은 작가가 여성을 보는 관점이 현실적 층위와 관념적 층위에서 각자 이질적인 형태로 뒤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명준의 실패한 삶을 받아주는 대상으로서의 윤애와 은혜는 언제나 이명준이라는 남성의 시각을 통해서만 서술되고 있다. 윤애와 은혜에 대한 서술은 이명준이라는 남성적 관점의 틀을 통해 바라보여지는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적 층위에서의 윤애와 은혜는 스스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남성의 사회적 실패를 보상해주는 수동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며 남성화자의 안식처로서의 모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성차와 관련한 편견이 드러나는데, 이명준은 가부장

제도에서 남성 권위를 마음껏 휘두르는 남성 우월 주의자요 반페미니스트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억압을 받은 채 여전히 타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아직도 유교 질서의 영향을 받고 있던 1950년을 전후한 때이라 그러한 탓도 있을 터이지만 반여성적 언급이나 진술이 두드러진다.

즉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의 위치는 남성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관점의 틀인 모성성의 범주 안에 구속하고 있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자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다른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IV. 교과서의 개선방향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제언

앞서 확인하였듯이 교과서의 여성상의 모습들이 가부장제가 부여한 고정된 여성의 모습이거나 열(烈) 이념의 실천적 존재로서 또는 지고지순한 어머니,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남자는 하늘’이며 ‘여자는 땅’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방식의 가부장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문학작품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남성 중심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배적 원리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처음에 의도하던 바의 위치에서 그 지위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누려온 것은 아니다. 문학 작품에서 보여 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며, 더러는 왜곡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남녀의 삶이나 생활 방식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의 삶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문학은 남녀 성별과 연관된 사회적·문화적·윤리적인 함의를 담아내고 있다.

작품에 투영된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문제점으로 제도화된 성불평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남녀의 차이를 만드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은 두 남녀의 성적인 결합이나 경제적 결속과 종족의 번식, 사회의 기득권 유지와 그것의 상속, 신분 또는 계급의 세습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화형태이다. 가족은 공식적 또는 제도화된 차원에서의 사회현상이지만, 우리의 공적 사회라는 것은 여성의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도화된 만큼, 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대로 여성에게 부당함과 모순적인 경험을 겪게 한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가족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우선

적으로 존중되며 남성 중심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가족관계를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가족은 달리 이해될 수 있다.⁵³⁾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에 나타난 가부장적 질서에 의한 남성 우월적 가치의 지향이나 권위주의에 따르는 타자로서의 여성의 삶의 모습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시작되어 교과서에서 더욱 규범화되어 나타나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밝힌 바대로 교과서 편자와 작품의 작자가 대부분 남성이며,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남성이 대부분이다. 또한 남성의 모습은 이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과 권위주의의식을 작품 곳곳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반면,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은 딸로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인 여성다움으로 정형화되어 있거나 이중적 자아로서 갈등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여전히 소외된 주변부의 타자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이거나 변화를 갈망하는 여성 일지라도 정절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규정한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명제는 남성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잃지 않으려는 허위의식의 산물이다.

문학에서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어왔던 주체적 여성의 모습들이 유독 어머니의 거세고 모진 성정에 관하여 관용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은 과거 조선조 사회부터 이어져 내려 온 것으로 명분만 따지는 무기력한 남성들 사이

53) 장미영, 「여성의 삶과 지배이념」, 『여성문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 태학사, 2001), p.114.

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젊음을 탕진한 뒤 뒤늦게 차지한 영예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의 여성은 가정에서나 사회적,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남성에게 비해 사회적 성취는 찾기 힘들며, 남성에게 종속되어 주변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고자 하는 현모양처로서 봉사와 인내와 희생의 미덕을 통해서 비로소 얻어진 모성만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남성 작가들에 의해 모든 문제의 돌파구를 모성성의 귀결로 매듭짓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감성을 통해 경험 현실이 재구성된 허구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 허구의 현실은 경험 현실을 반성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구현되어야 할 현실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작가의 안목에 의해 굴절된 현실은 작품이 배태된 그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당대인들의 현실 인식이기도 하다. 작가나 당대인들이 살아가는 경험 현실은 여성과 남성, 또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 성별화 되어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은 성별화 된 현실 세계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동시에 남성, 여성 사이를 경계 지우는 문화 또는 가치체계의 영향관계에 놓인다.⁵⁴⁾

현대의 사회에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존재한다. 교육적 혹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인간형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우리의 가치판단 하에서 수용되고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바람직하고 규범에 자유로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잘 인지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규범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곧 발을 디디게 될 사회에서의 다양한 인간군상의 수용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직된 태도와 편견으로 대하게 될 우려도 있다. 고전문학 작품에서나 현대문학 작품에서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제

54) 장미영, 위의 책, p.93

시된 여성상과 그에 대한 규범과 가치만을 고집하였을 때 전인적 성장, 개성추구, 창의성 발휘, 교양과 진로개척, 문화이해와 새로운 가치 창조, 민주 시민의식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성주의 시각에 의해 교과서를 바라보는 것은 성별의 차이와 성별화 된 현실 상황에 주목하면서 경험 세계를 새롭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존하는 성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여성에 대한 왜곡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우선 올바른 여성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처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부여한 수동적 객체로 나타나는 교과서 내의 여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진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과 교육내용에 변화된 여성의 삶과 지나온 여성의 삶의 기여를 정당하게 표현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관점에서 교육내용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기술을 늘린다거나, 성편견이나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것이 여성의 참여에 달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성과 남성간의 인식의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성적 균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될 작품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여성주의

교육을 위한 본격적인 문학제제도 수록되어 문학교육을 통해 올바른 여성상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문학의 형식을 빌려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는 글을 수록하는 것과 확고해진 학생들의 고정적 성관념을 수정하기 위해 읽기 자료나 토론거리를 제공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과서에 성차별이나 여성의 문제에 관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셋째, 교과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교사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교사의 올바른 여성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과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 성취 및 진로의 문제, 남녀 관계와 사회에 대한 관심의 문제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주의 교육이 제도권 교육에서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들에게 여성학이나 여성주의 교육이 교원양성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⁵⁾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역사적 여성인물의 발굴이다. 여성의 일과 삶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평가된다는 사실은 여학생들에게는 역할 모델로서 삶의 표본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여

55) 이진분, 「한국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교사교육과 양성평등」에 따르면, 교사 교육에서 양성평등 연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교사 교육에서의 성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의 문제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현장에서 “1) 교사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직업지도에서는 성차에 따른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났고, 2) 조사대상의 60% 이상이 성별에 따라 학습목표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3) 80% 이상의 교사가 교수방법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고, 또한 4)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제시하는 규범과 덕목이 성차에 따라 분명히 구별”되고 있는데, 이는 남교사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국어교육』 111호, 2003. 6. p.92에서 재인용.

성의 삶의 자취가 인정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⁵⁶⁾ 역사 속에서의 여성 소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온 주체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의 여성의 삶과 자취를 다루지 않으므로 해서 남성의 역사가 곧 인류의 삶의 역사로 대치되는 남성 중심적인 역사관과 사회관을 드러내고 있⁵⁷⁾음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성인물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6) 김재인, 「여성 진로의 다양화와 교육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1993, pp.84-85.

57) 오재림, 앞의 연구, -여성교육 정책연구과제 2002-02, 교육인적자원부, p.4

V. 결론

지금까지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과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분석해보았다.

우선 교과서에 실린 제재를 통해 저자의 성비를 비교하여 보았으며 이를 통해 남성저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국어 교과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과 다른 과목의 도구교과로서의 성격도 지니는 면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은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의 편중 현상이 학생들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주입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학작품의 주제와 그 의미를 통해 교과서의 성의 편중현상은 교과서 제재에서 나타났듯이 문학작품에서도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학작품의 중요성은 작품을 통해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에 총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작품 속의 성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이해는 주제를 통해서 작가가 가진 사상과 정서를 파악하고 그것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미래의 지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제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공공연하게 남성 우월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문학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에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행해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이상적이고 진취적인 남성, 범국가적이고 범사회적인 남성, 자신보다는 국가를 현실보다는 이상을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큰

일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으로 남성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을 억압하고 꺾박해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문학작품 속에 굳건한 위치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중의 정서는 풍자를 통해, 해학을 통해, 체념과 한을 통해 그 실상을 고발하였으며, 굳건할 것 같던 자리에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남성들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반면에 여성들의 양상은 순종적이며 유순한 여성성의 발현, 열녀의 모습을 요구하는 정절 이데올로기의 모습이 부부유별, 삼종지도 등을 통해서 절대적인 남성세계의 질서를 보여주기도 하며, 정체성 없이 남성의 피난처로서의 여성과 투쟁적이고 무조건적인 모성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여성이 주변부의 삶, 가부장적 제약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 남성은 보다 우위에 서서 여성을 지배하고 종속하고 거느리는 모습으로 교과서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작품 전반을 통해 그 성격적 양상이 드러나지 않거나,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 작품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교과서의 한계로 일부분을 발췌 수록하여 주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단원의 배치가 되었거나 주동인물이 아닌 부수적인 인물이라는 한계로 단원의 학습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춘향전의 경우 주동인물이 명백히 춘향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수록부분에서 배제된 것은 다분히 집필진의 사고가 개입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집필진의 성비의 문제도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비껴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근대의 신여성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근대 신교육, 신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여성들의 자아가 깨어나게 되고 보다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이전의 가정에서의 의무로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신여성으로의 삶이 더해지게 되는 양상이다.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성의 현실은 두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냉소이다.

6·25이후 여성의 모습은 보다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설에서 주도적 여성은 모성이라는 틀로 회귀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닌 여성은 수동적이거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는 모습과 한계를 지닌다. 소설에서의 여성들이 일괄되게 모성으로 회귀하고 있다면, 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여성화자의 모습은 한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이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이 모두 남성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여성상이라는 점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위치는 어머니뿐이라고 선택한 이데올로기의 횡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드러난 교과서의 여성상의 문제점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제도화된 성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법, 종교, 문화적 관습이라는 사회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남성지배 형태는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하여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가부장제’라는 사회질서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가부장제가 여성의 지위를 구분하여 생활을 제한하였고 여성에게 부여된 의무만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더 엄격한 규범성을 부여한다. 여성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사회의 질서가 교육에서는 가부장제 이념과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내면화시켜왔으며,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회가 기대하는 차이 있는 직업과 역할을 습득시켜 적응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남성의 모습은 이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반면, 여

성의 모습은 딸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본고에서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진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이던 교과 내용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여성주의 교육을 위한 본격적인 문학제재의 수용과 교과서 내에서 성차별이나 성문제에 대한 개방적 사고가 요구된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여성학이나 여성주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남성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로 대치되어 온 과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적 여성인물의 발굴과 교과서에의 수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적한 네 가지의 개선방향은 남녀평등의 교과서를 구현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고 난 후에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또는 평가의 다양한 항목을 통해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학습이 마련되고 보완되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다음 세대는 오늘 청소년들이 내일의 성년이 되는 시기로서 동등한 임금, 아동양육, 낙태, 강간, 남성으로부터의 폭력 등과 같은 주제들이 더 이상 ‘여성문제’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관심을 반영하는 ‘경제문제’나 ‘가족문제’ 그리고 ‘윤리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⁵⁸⁾

페미니즘의 문제를 단지 남성 지배의 사회구조 속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공격적인 욕구불만의 표출이라는 차원이 아닌, 권력과 제도가 인간의 삶을 길들이는 자체의 재생산 매커니즘에 의해 파생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 페미니즘은 소모적인 순환논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성대결의 범주를 넘어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화된 억압의 양상들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물음의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58) 정일환 외, 『여성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83

참 고 문 헌

1. 자료

완판열녀춘향수절가

염상섭, 『삼대』, 신원문화사, 1994.

최인훈, 『광장』, 문학과지성사, 197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상)』, (주)두산, 200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하)』, (주)두산, 200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3.

2. 정기간행물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 111호, 2003.

김석희, 「서포소설의 주제시론」, 『선청어문』 1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89.

이진분, 「한국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교사교육과 양성평등」, 『국어교육』 111호, 2003.

유영희, 「교과서 문학 제재의 수용 양상 및 특성」, 『문학교육학』 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최응권, 「박지원의 소설과 그의 여성관」, 『여성가족생활연구논총』 제4집

3. 단행본

공종구, 『한국 현대 문학론』, 국학자료원, 1997.

-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 김재인, 「여성 진로의 다양화와 교육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1993.
- 김진기 외, 『페미니즘 문학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 김해옥, 「한국 여성소설을 통해 본 ‘근대성’과 ‘여성성’의 대위법」,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 김현용, 박용식 편저, 『고전문학 새 조명』, 박이정, 1996.
-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문학 속의 여성』, 월인, 2002.
- 박혜경,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2000.
- 변신월, 「여성문학과 일상성」,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 송지현,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 평민사, 1996.
- 실비아 윌비 지음, 유희정 역,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대출판부, 1996.
- 오재림,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02.
- 유제분, 『페미니즘의 경계와 여성문학 다시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
정, 1993.
- 이정자 지음, 『한국 시가의 아니마 연구』, 백문사, 1996.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 장미영, 「여성의 삶과 지배이념」, 『여성문학의 어제와 오늘』, 태학사
2001.
- 정순진, 『한국 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국학자료원, 1993.

- 정영자, 『한국 페미니즘 문학연구』, 좋은날, 1999.
- 정일환 외, 『여성교육론』, 교육과학사, 2003.
- 정해숙·정경아,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98연구보고서 240-1,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조혜정,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 C.G. Jung,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93.
- K. 밀레트 외, 정의숙 외 역, 『성의 정치학』, 현대사상사, 1983.
- 팸 모리스 지음,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1999.

4. 논문

- 강남희, 「국어 교과서 소설 작품의 주제와 가치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애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애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 상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손연식,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양성평등교육상의 문제점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안지영,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덕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연숙, 「루소의 여성교육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0.

이유진,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나는 여성상 비교 분석: 초등학교 국어·도
덕 교과서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정례,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0.

한귀은, 「문학교육의 교육연극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1.

ABSTRACT

Text Analysis in the respect of feminism

Jang, Soon Sim
Major in Korean Educati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reatise researches national language 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which followed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from feminism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text book analysis, we found that the numbers of man writers are overwhelmingly bigger than that of woman writers not only in literary works but also in non-literary ones.

Also by the comparison an image of man with that of woman in the literacy work, this treatise intended to indicate the problem of distortion of woman and ideology of androcentrism too.

First of all, various works in the text books are classified with contemporary literature and classic one. Then each works are classified again with genre of Epic, Lyric and Gyosul so that I could look into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purpose and the significance which were intended by the means of the title and contents of the text books.

By distinguishing subject matters alone I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se subject matters were inserted into the textbook formulation

Through this work, I found that various aspect of the paternalism which has been emphasized from ancient times penetrated into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text books.

The paternalism was sometimes presented by manly superiority or undemocratic authoritarianism, which disregarded and fixed the image of woman and lasted the authorities so far.

Due to this difficulties, women couldn't help suffering from the obstacles in the way of realizing her will as a object of man and the world.

This kind of paternalism and exclusive view of woman have penetrated into works of man with various aspects and have taught students fixed view of woman or man, even if they should have been brought up as a independent personalities.

Although the education goal of the seventh education program has the mission to generate highly creative human resources, the program turns out to teach the same old fixed idea that man or woman's role does not change.

Accordingly, I could see that man is always required to be superior and perfect leader, while woman is required to sacrifice herself for her husband and family, and this situation leads to repress not only woman also man.

On the basis of thes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right views of womanhood.

First of all, in the course of text book compilation, we should reconsider and reflect the problem of leaning upon the writer groups or number of writers for ascertaining the various values

Also, we need some opened mind for bisexual equality in education area and the studies of historic woman and feminism education to teachers.

The teachers who are charged in the task of the education subjects should have knowledges and accommodations which enables to analyze various works in all viewpoints. On the basis of these we could raise the standard of education and teach the students.